Industry p/11

통신3사 데이터요금제 전쟁

metro®

메트로 2015년 5월 20일 수요일 제3219호 www.metroseoul.co.kr

Entertainment p/17

국내 첫 데뷔 '엔플라잉'

19일 서울 삼청동 청와대 본관에 짙은 물안개가 끼어있다. /사진 뉴시스

정치 실종

靑 개혁 동력 상실… 野 집안 싸움 골몰

19일로 5·2합의안이 나온 지 보름이상 지났지만 공무원연금개혁은 표류하고 있다. 오는 28일 5월 국회 본회의에서 극적 타결 가능성이 점쳐지고는 있다. 하지만 이미 '미봉책'이란 인식이 국민에게 퍼진 상태다. 타결되더라도 개혁의 의미는 사라진다.

공무원연금개혁은 박근혜정부 4대개혁(공공·노동·금융·교육)의 시금석이다. 이대로 봉합될 경우 박근혜정부의 남은 2년은 '개혁의 공백기'로 기록될 거란 관측이 많다. 현재 한국의 정치판은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리더십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일방적 리더십은 여권 내 갈등을 부르고 있고, 대안세력인 제1야당은 붕괴 직전이다. 박근혜정부의 거창한 4대개혁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이야기다.

전날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수석 직을 사퇴하며 "공무원연금개혁은 지금 당장의 재정절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나아가 미래세대에 막대한 빚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이루어졌어야 할 막중한 개혁과제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금개혁을 수용하는 대가로 이와는 전혀 무관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이나 심지어 증세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애초 개혁의 취지를 심각하게 몰각한 것으로서 국민들께 큰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강화를 타협의 조건으로 내건 쪽은 새정치민주연합이지만 이를 수용한 쪽은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은 합의안의 성과를 설명하면서 '재정절감 효과'를 강조했다. 조 전 수석의 비판이 새누리당 지도부를 향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당·청 간 불협화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해 7·30전당대회에서 비박(비박근혜)인 김무성 대표가 친박(친박근혜) 핵심인 서청원 의원을 압도적으로 누른 뒤 청와대의 개혁 드라이브는 일방적으로 흘러갔다. 김 대표는 당·청 갈등을 무마하기 위해 청와대의 개혁 드라이브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해 10월 김 대표가 상하이발 '개헌 봇물론'으로 궁지에 몰렸을 때 청와대는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의 입을 통해 "공무원연금개혁을 연말 내 반드시 당이 처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김 대표는 채 10일도 지나지 않아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공무원연금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초 요구보다 넉달 늦어지는 동안 청와대의 압박은 계속됐다. 김 대표는 지난 13일 합의안 후폭풍이 거센 상황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이 시간적 제약을 받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고 인수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안이었기 때문"이라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4월국회에 끝내달라고 했던 것이 정부와 청와대의 강력한 요청"이라고 말했다.

여권 내 리더십만이 자중지란에 빠진 게 아니다. 세월호 합의안으로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물러난 뒤 새정치연합의 내홍은 끊이지 않고 있다. 주류라는 문재인 대표 체제마저 재보선 패배로 풍전등화의 위기상황이다. 공무원연금특위 위원인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은 합의안 도출 이후 "우리(새정치연합)는 세월호 트라우마에 시달렸다"며 "우리는 서민을 위해 일하지만 (여당과) 타협을 하게 되면 결국 모든 비난은 우리가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개혁도 똑같은 상황에 처했다"고 했다. 홍 의원은 "처음부터 실제로 타협을 할 수 있으리라 믿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새정치연합은 연금문제에 있어서는 '진보 대 보수'라는 프레임에 갇혀있다. 공무원연금 문제를 민간보험회사의 이익과 결부시켜 바라본다. 청와대의 개혁 드라이브를 막아내는 게 최우선 목표다. 새정치연합에서 개혁안을 기대할 수 없는 이유다. 홍 의원은 특위 위원을 맡으며 "공무원연금개혁이 무력화되면 최소한 진보진영에서 (내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았다"고 말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와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세요

존 케리의 허풍… 사드로 SLBM 방어?

북한 SLBM 해상 위협 사드는 전방위 방어 불가

한국을 찾은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개발을 핑계로 자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전문가들은 사드가 해상으로부터의 북한의 위협에 무력하다고 말한다. 케리 장관도 이를 알았다면 '거짓말'을 한 셈이다. 전문가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검증되지 않은 성능을 과장한 '허풍'인 셈이다.

19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드는 지상핵미사일 요격용 방어체계로 특정한 방향의 지상 위협에 대해서만 대응할 수 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우리가 요격체제를 갖추는데 있어서 자기들 돈으로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것은 미국의 마음이니까 그건 괜찮지만 우리 돈으로 패트리어트(PAC)-3 이외의 제2, 제3의 요격체계를 들여오려고 한다면 사드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우리의 위협이 북한의 지상발사핵미사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 위협인 SLBM이 있기 때문"이라며 "그것까지 같이 막을 수 있는 무기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드보다는 360도 전방향 탐지요격되는 요격미사일 체계를 구입해야 한다"고 했다.

레이더 전문가들은 사드의 탐지레이더 문제를 지적한다. 사드의 탐지레이더인 AN/TPY2는 지상 설치 레이더다. 수중에서 발사되는 SLBM에 대응하기 위한 레이더가 아니다. 또 요격용이라 설치된 포대 앞 한 방향으로만 탐지할 수 있다는 게 단점이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어느 한 방향으로 레이더를 고정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전 방위를 다 감시하기 위해서는 각 방위마다 따로 설치해야 한다. 사드 포대 하나를 도입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사드 포대를 몇 대나 도입해야 하는지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사드 레이더의 탐지범위와 관련해 공군 출신의 한 레이더 전문가는 "레이더의 기본적인 원리만 이해해도 사드 레이더의 한계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레이더 안테나의 성능은 안테나가 에너지를 어느 각도로 집중시키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각도를 좁힐수록 탐지성능이 향상된다. 사드 레이더의 탐지각도를 키울수록 탄도미사일 방어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설명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감안하면 포대 수를 줄이는 모험을 하기 힘든 상황이다. 사드 포대의 천문학적인 액수를 생각하면 사실상 사드 배치는 물 건너간 상황이다. 현재 사드의 1개 포대 가격은 약 1조 500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이마저도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예산 문제로 사드 포대 한두 대를 도입해서는 헛돈을 쓰는 꼴이다.

미군이 사드 포대를 도입한다면 한국이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있지만 보통 한국과 주한미군 사이의 무기구입은 먼저 요구하는 쪽이 비용을 부담해왔다. 예외적으로 미군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해도 북한의 SLBM 방어에 필요한 만큼의 수량을 도입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국방비 부담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윤아기자 yoona1@metroseoul.co.kr

존 케리의 '사드' 발언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사이버안보'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모디 인도총리가 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십컨퍼런스 개회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앞에 박근혜 대통령이 앉아 있다. /연합뉴스

반기문, 내일 개성공단 첫 방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오는 21일 개성공단을 방문한다.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 총장의 방북은 최근 북측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의 포격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개성공단 최저임금 문제를 둘러싼 남북 간 갈등 등으로 한반도 긴장 고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재 방한 중인 반 총장은 21일 오후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통과해 경의선 육로로 개성공단에 들어갈 예정이다.

반 총장은 개성공단에서 우리 입주기업을 둘러보고 북측 근로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또 공단 내 우리 근로자들을 위한 응급의료시설도 방문할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반 총장은 외교부 장관 시절인 2006년 6월 당시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를 비롯한 주한 외교공관장 70여명을 이끌고 개성공단을 방문한 적이 있다.

반 총장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뉴욕 채널을 통해 북측에 개성공단 방문 의사를 밝혔으며, 이와 동시에 우리 정부에도 관련 내용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아기자

"김정은, 당창건일 장거리미사일 발사 지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올해 노동당 창건 70주년(10월10일)에 맞춰 장거리미사일 발사 준비를 지시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지난 18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한국, 미국, 일본은 북한이 사실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실험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경계하고 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3일 김 제1비서가 새로 완공된 국가우주개발국의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국가우주개발국 대변인은 지난 8일 "위성을 필요한 시기에 정해진 장소에서 계속 발사한다는 것은 우리의 불변의 입장"이라는 담화를 발표했다.

지난 9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모습. /연합뉴스

북한은 2013년 말부터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 발사장 내 50m 높이의 발사대를 55m 이상으로 높이는 증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완공될 경우 은하 3호 로켓(길이 30m)보다 길이가 긴 40~43m짜리 로켓도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송병형기자 bhsong@

韓日 '日 유네스코 유산 등재' 외교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9일 인천 송도에서 방한 중인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만나 일본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산하 민간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는 일본이 신청한 23개 근대산업시설에 대해 '등재 권고' 결정을 내렸으며, 이를 바탕으로 6월28일~7월8일 독일 본에서 열리는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23개 시설 중 7곳은 일제 강점기 시절 조선인이 강제징용을 했던 시설이다. 이들 7개 시설에 무려 5만7900명의 조선인이 강제동원됐고 그 중 94명이 강제동원 중에 사망했다.

정부는 일본 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자체를 막지는 못하더라도 결정문에 관련 내용 적시 등을 포함해 어떤 식으로든 관련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코바 사무총장은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실질적인 권한은 없다. 하지만 우리 정부 입장을 국제사회에 환기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일본도 지난 8일 이후 내각부, 외무성, 문부과학성 등이 정무관과 부대신 6명을 10개국에 파견했다. 17일에는 나카야마 야스히데 일본 외무 부대신이 위원회의 부의장국인 자메이카로 출발했다. /정윤아기자

유·무선 음성통화 '3만원대 무제한'

당정 '통신비 절감대책' 데이터중심으로 개편

당정이 유·무선 음성통화를 3만원대에 무제한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2만원대라고 했지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3만원이 넘는다. 통신데이터는 미리 당겨쓰거나 이월이 가능하다. 카카오톡과 보이스톡 등 무선인터넷 전화도 전면 허용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9일 국회에서 '가계통신비 경감 관련 공약 이행현황·추진계획' 당정 협의를 열고 데이터 이용 급증 추세를 고려해 통신요금을 '데이터중심요금제'로 재편했다고 밝혔다.

우선 휴대전화는 물론 집전화·사무실 전화 등 유선 전화에 거는 음성통화를 3만원 대에 무제한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음성서비스를 사실상 기본 서비스화했다. 이를 위해 기존 음성 무제한 요금을 5만1000원에서 2만9900원으로 인하했다. 음성통화가 많은 택배기사, 대리기사, 영업사원, 주부, 중장년층 등 300만명이 최대 7000억원의 절감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당정은 추산했다.

무선인터넷전화도 전면 허용했다. 기존의 무선인터넷 전화는 요금 구간마다 사용량에 제한이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주어진 데이터 제공량 범위 내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해진다. 해외 유학 중인 자녀와 통화를 많이 하는 부모 등이 비싼 국제전화를 무선인터넷전화로 대체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당정은 예상했다.

또 데이터 무제한 요금의 시작구간을 인하하고 데이터 당겨쓰기와 이월하기가 가능해진다. KT는 6만1000원에서 5만9900원으로 무제한 요금 시작구간을 인하한다. SK텔레콤은 6만1250원에서 6만1000원으로, LG유플러스는 6만2000원에서 5만9900원으로 인하한다.

당정은 이통3사 모두 약정 없고 위약금 없는 요금체계를 전면 도입해 약정을 하지 않아도 요금은 과거와 같이 2년 약정 할인된 수준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약정 부담 때문에 무약정으로 높은 요금을 부담해온 이용자들에게 연간 약 3600억원의 통신비 절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가계통신비 경감 관련 당정협의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왼쪽 세번째부터)과 홍문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가계통신비 경감 관련 당정협의에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날 SK텔레콤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 대해 인가 결정을 내렸다. SK텔레콤을 마지막으로 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이 마무리됐다. 이날 정부의 인가를 받게 됨에 따라 SK텔레콤도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발표했다. 앞서 KT와 LG유플러스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출시한 가운데 SK텔레콤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미래부와 요금제를 협의해야 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제전화를 많이 쓰는 가족들의 통신비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며 "최근 도입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20%까지 더하면 통신비 절감효과가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도 "정액요금제 도입이 초고속 인터넷과 인터넷경제의 발전을 이끌었듯이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본격적인 데이터 시대로의 전환을 촉발하여 모바일 기반 벤처기업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김서이기자 redsun217@metroseoul.co.kr

'눈먼 돈 논란' 국회 특수활동비 한 해 80억

눈먼 돈 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 특수활동비가 한 해 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완종 리스트 연루 의혹을 받는 홍준표 경남지사나 입법 로비로 재판을 받는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모두 국회 특수활동비를 문제가 있는 돈의 출처로 해명했다.

국회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게 위원회 활동 지원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지급한다. 상임위원장과 각종 특위 위원장은 한 달에 600만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준표 경남지사(좌), 신계륜 의원.

각 당 원내대표에게는 해마다 원내 활동지원 명목의 예산이 책정되면 이를 의석 비율로 나눠 지급한다. 원내 활동지원 명목의 예산은 지난해 9억6000만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직하는 새누리당(160석)의 원내대표라면 위원회 활동 지원과 원내 활동지원 명목으로 한 해 6억원에 가까운 특수활동비를 지원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국회 특수활동비는 매년 80억원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특수활동비 내역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특수활동비는 별도의 수령 통장을 개설해 받기는 하지만 사용 후 영수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어 엄격히 관리되는 정치자금과 비교해 볼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정경기자 jkljkl@

문재인 대표 사퇴 촉구 기자회견 정권교체를 바라는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당원연대 회원들이 19일 여의도 새정치연합 당사 앞에서 문재인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 총리 후보자 '이번 주' 지명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주내에 새 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새 총리 후보군에 대한 검증 작업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결심만 남겨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달 예정된 미국 방문이 크게 작용했다는 전언이다.

새 총리 후보자로 지명될 인사와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이 법조계 인사 가운데 선택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박 대통령은 성완종 사태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고강도 정치개혁을 이미 예고한 상태다. 정치개혁의 적임자로 법조계 인사가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현재까지 이명재 대통령 민정특보,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조무제 전 대법관, 목영준 전 헌법재판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직 각료 중에선 황찬현 감사원장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후보군에 포함된다.

이 가운데 이명재 특보와 조무제 전 대법관 등 일부 인사들은 본인이 거듭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경우 여성 대통령에 여성 총리라는 구도 때문에 총리 인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정치인 인사의 발탁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들이 내년 4월총선출마를 원하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로 지적된다.

/송병형기자 bhsong@

박기춘 "정청래 징계, 마녀사냥 꼼수 우려"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공갈 사퇴' 발언으로 당 윤리심판원에 제소된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 "제1야당이 마녀사냥으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작금의 상황이 희생양 하나로 해결 될 문제냐"며 "(정 최고위원은) 좋든 싫든 제1야당의 위기를 함께 극복해 온 동지이자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했다.

이어 "정 최고위원의 언행을 두둔하지 않는다. 정상적 사고를 한다면 당연히 거부감이 클 것"이라면서도 "18대 국회, 정 최고위원의 낙선은 우리 당에 커다란 손실이었다"고 했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연합뉴스

그러면서 "오히려 사즉생의 각오로 모두의 희생이 절실한 것 아니냐"며 "적재적소의 인사를 통해 정 최고위원의 역량이 당을 위해 올곧이 발휘되도록 하는 것이 이 시점, 가장 필요한 리더십이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이정경기자

법무부 "유승준 입국 허용 검토 안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무대에서 퇴출된 가수 유승준(39·사진)의 입국금지가 해제되고 국적회복이 가능하다는 언론 보도에 법무부가 정면 반박했다.

19일 법무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대로 법무부나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와 한국국적 회복이 가능하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사실이 전혀 없다"고 전했다.

이날 일부 언론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의 입장이라며 병무청장이 해제를 요청하면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가 가능하며, 본인 요청시 국적회복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그러나 법무부는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나 국적회복을 고려하고 있지도 않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앞서 1990년대 후반 댄스가수로 큰 인기를 끌었던 유승준은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나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끝에 입국금지 조치됐다. /이홍원기자 hong@

형사사건 피해자 법정 진술 보장

형사사건 피해자가 법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진술할 기회가 보장된다. 이는 민사사건 당사자도 마찬가지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규칙과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피해자 진술은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되는 증인신문 방식으로 이뤄졌지만, 개정 형사소송규칙은 피해자가 자신의 상황을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진술은 당사자가 직접 재판부에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채택해 들을 수 있다.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믿을만한 사람이 동석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서면으로 자신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할 수도 있다.

민사사건 당사자도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자신의 최종의견을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가 보장된다.

사건의 사실 관계를 가장 잘 아는 당사자 신문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대방의 신문내용을 당사자가 미리 받아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당사자가 미리 신문내용을 받아보면 예상답변을 준비해 실체적 진실 발견이 늦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규칙을 보완한 것이다.

개정된 규칙은 내달 대법관 회의에서 의결하고 이르면 내달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홍원기자

'백수오 집단소송' 승소 가능성은

"정신적 피해 보상 가능"

'가짜 백수오' 파문으로 소비자들이 판매처와 제조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사 소송을 검토하는 법무법인들은 현재 ▲구매한 백수오 환불 ▲정신적 피해 보상 ▲의학적 부작용 보상 등을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환불 문제는 법정까지 가지 않아도 해결 된다는 게 법무법인들의 판단이다. 환불을 거부하던 일부 홈쇼핑 등이 최근 태도를 바꾸며 소비자들에게 일부 또는 전액을 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정신적 피해 보상도 재판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 소송을 준비하는 A 변호사는 "소비자로서 업체에 속아 자기가 의도치 않은 식품을 먹은 점에서 정신적 고통을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가짜 백수오를 먹고 의학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소송 당사자별로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는 의견이다. 가짜 백수오를 섭취해 실제 질병이 생겼다고 해도 이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 책임은 결국 원고에게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들은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20만~1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의학적 부작용에 대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당사자는 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앞서 백수오 파문과 유사한 소송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사례가 있다. 이에 급성 폐렴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란 질병관리본부의 조사 결과를 업체가 반박하며 제조사·판매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이 제기됐다.

당시 보건당국은 조사위원회를 꾸려 상관관계 조사에 나섰고 결국 환자 사망 사례 104건 중 57건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라고 결론 냈다.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유가족들은 지난해 8월 법원에서 업체들과 비공개로 조정(화해) 했다. /이홍원기자

洪·李 재판서 '금품 거래내역' 공개

檢, 공소유지 전략

검찰이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기소여부 공개를 앞두고 재판에서 금품 거래 시점 등 상세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

19일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문무일 검사장)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금품거래 시점이나 장소,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첫 재판 때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맡은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그간의 수사성과를 토대로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에 대한 조사를 이날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1억원을,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3000만원을 각각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기로 잠정 결론낸 상태다. 다만 금품거래 혐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보안을 유지하다가 첫 재판에서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검찰의 공소유지 전략으로 받아들여진다. 홍 지사와 이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는 시점과 장소, 방식 등은 상세하게 특정돼 있지만 유죄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서 공판이 열릴 때까지 보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홍 지사는 금품이 오간 날짜 자체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이 전 총리의 경우 금품거래의 구체적 시간대와 전달 방식 등이 베일에 가려진 상태다. 검찰은 이들의 공소장에도 대략적인 혐의 내용만 담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미란기자 actor@metroseoul.co.kr

'말뚝테러' 日 정치인이 나눔의집에 보낸 일그러진 소녀상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한 일본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鈴木信行)씨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보금자리 나눔의집에 소포를 보냈다. 여기에는 '제5종보급품'(第五種補給品)이라는 글자가 적힌 용기 속 일그러진 소녀상과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글자가 적힌 작은 말뚝이 들어 있었다. /연합뉴스

심상철 "양형 편차가 국민 불신 초래… 기준 필요"

서울 고법 주재 토론회

최근 서울고등법원(심상철 법원장·사진)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양형실무토론회에서 부패·경제(횡령·배임)·조세·성폭력 사건에 대한 적절 양형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서울고법은 심 법원장 주재로 부패·경제(횡령·배임)·조세·성폭력 사건에 대한 적정한 양형과 양형기준을 논의하는 '2015년 서울고법 관내 형사합의부 양형실무토론회'를 지난 18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심 서울고법원장은 "법관은 자신만의 독단으로 건전한 법적 상식을 소홀히 해도 안 되며 국민정서에너무 휩쓸려도 안 된다"며 "양형인자에 대해 법정에서 충분한 공방을 갖고 양형기준을 판결에 표시해 재판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강영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형사재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부장판사는 "항소심은 형벌 목적 달성에 적정한 양형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관내 1심 재판부 양형에 과도한 편차가 있다면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사한 범죄 간 양형 차이가 있다면 국민이 공정성을 의심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강 부장판사는 "항소심은 '폭의 이론'에 따라 특별 사정이 없는 한 1심 판단을 유지하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며 "1심에서 재판부 상호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유사 사례 양형 균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로 정치인이 관련된 부패 사건과 대기업 총수가 연관된 경제·조세 사건, 성폭력 사건은 일반 국민들이 높은 양형을 요구하는 범죄다. 이에 서울고법이 토론회를 통해 양형기준과 실제 양형을 논의함으로써 향후 이 범죄의 양형을 강화할지 주목된다. /이홍원기자

경찰 "CCTV는 문서 아니다"

서울경찰청 "세월호 집회 촬영 CCTV 제출" 법원 명령에 '이 핑계 저 핑계' 불복

교통정보수집용 CCTV카메라를 서울지방경찰청이 집회 감시용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집회 당시 찍은 CCTV카메라 영상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증거보전신청 결정문에서 법조항이 누락돼 경찰의 항고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은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원이 증거제출에 적용한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는 CCTV 제출에 대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법조항이 달라지면 법리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진술권을 침해받았다"며 불복, 항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세월호참사 유가족 최경덕씨와 참여연대는 경찰이 교통정보수집용 CCTV카메라를 집회 감시용으로 사용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세운 가운데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같은달 30일 민사소송법 제374조, 344조, 민사소송규칙 122조를 근거로 증거보전 신청을 수용, 서울경찰청에 관련 영상을 제출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은 관련물을 가지고 있는 상대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지만 지키지 않았다는 점, 또 영상물 제출은 제366조 '검증대상 제출'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메트로신문이 입수한 결정문에는 "법원이 한 2015년 4월 30자 결정 이유의 '제374조, 제344조, 민사소송규칙 제122조'를 '제366조'로 경정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법원은 14일 이 같은 결정이 담긴 수정본을 신청인 측 참여연대와 세월호 유가족 박씨의 대리인인 박주민(법무법인 이공) 변호사와 피신청인인 서울경찰청에 송달했다.

신청인 측 대리인인 박 변호사는 이에 대해 "(법원의 법리 오해와 경찰의 항고로) 늦어지는 것에 대해선 유감이지만 일단 영상을 확보하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54부 송중호 판사는 서울경찰청의 항고로 이 같은 결정이 이뤄진게 아니냐는 물음에 "항고에 의해 경정된 것은 아니다. 내용이 바뀐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송 판사는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그대로 결정이 나간 것"이라며 "원래 제366조를 적었어야 하는데 빠뜨렸다. 누락이 명백하기 때문에 직권으로 경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경찰청 측은 이번 사건을 야기한 CCTV감시 의혹에 대해 "CCTV는 늘 도로를 향하고 있다. 불법 시위대가 도로 위를 점거했기 때문에 마치 감시하는 것처럼 보인 것"이라고 일축했다.

/연미란기자 actor@metroseoul.co.kr

檢, '포스코 비리' 정동화 前부회장 소환

정동화(64·사진)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검찰에 소환됐다.

'포스코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19일 정 전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정 전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현재 정 전 부회장을 상대로 포스코건설 임원들에게 국내외 공사현장에서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하거나 상납 받았는지를 추궁하고 있다. 또 뒷돈의 구체적 사용처도 조사하고 있다.

정 전 부회장은 2009~2012년 포스코건설 사장을 지냈다.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현장 비자금 조성과 토목환경사업본부 임원들의 금품수수 등 지금까지 불거진 의혹 대부분이 정 전 부회장이 포스코건설 사장 재임 때 벌어진 일이다.

검찰은 포스코건설 전·현직 임원들을 조사해 정 전 부회장이 '영업비'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정 전 부회장은 중학교 동문인 컨설팅업체 장모(64·구속기소) I사 대표에게 사실상 브로커 역할을 맡겨 국내외 공사현장의 하청업체 선정에 개입하고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거나 뒷돈을 상납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 전 부회장이 소환되면 정준양(67) 전 포스코 회장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포스코건설 비리 의혹, 포스코와 협력업체 코스틸 간 불법거래, 성진지오텍을 비롯한 부실 인수·합병 등 세 갈래 수사 정점에 정 전 회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홍원기자 hong@

UN 창설 70주년 기념식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9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 G타워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동북아사무소에서 열린 UN 창설 70주년 기념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대 프라임칼리지 6월 수강생 모집

방송대 프라임칼리지(학장 김영인)는 26일까지 홈페이지(prime.knou.ac.kr)에서 4050세대의 맞춤형 제2경력개발을 돕는 '제2인생설계·준비과정' 6월 수강생을 모집한다.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준비과정'은 은퇴 후의 삶에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재취업뿐 아니라 생활 속 활용도가 높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과정이다.

학습목적에 맞춰 트랙별 총 40개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6월 강좌에는 여름방학을 이용해 학습할 수 있게끔 학내외 학습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신규 교과목 8개를 개설했다.

중년 이후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2인생 대학' 트랙에서는 「부모되기 연습」, 「부부패턴 스위칭 : 부부감정관리와 대화기법」 과목이 신규 개설되어 참부모되는 법과 부부 간 갈등치유·배우자와의 친밀감 회복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성공적으로 운영 된 작은집 : 싸게 짓고 행복하게 살기의 2탄 「작은집 싸게 짓고 행복하게 살기2」 교과목도 다시 개설돼 작은집 설계와 시공에 대한 노하우를 챙길 수 있다.

法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조이제 전 국장 보석 허가

채동욱(56·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조이제(55)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19일 조 전 국장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조 전 국장의 보석 청구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보석금은 3000만원으로 알려졌다.

조 전 국장은 지난해 11월 1심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구속재판 기간이 6개월로 제한된 점, 조 전 국장의 형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보석 결정을 내렸다.

앞서 조 전 국장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조회해 얻은 정보를 국정원 직원 송모씨와 주고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홍원기자

19일 조 전 국장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의 보석 청구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우리은행, 4년 적자기업 '기술' 믿고 지원

창간 13주년 相生

'미래가치' 보고 자금대출 상생결제시스템 도입도

지난 2010년 디스플레이 제조시장에 뛰어든 제이앤티에스(JNTS)는 스마트폰의 핵심부품 중 하나인 터치스크린 패널을 만드는 업체다. 이 회사는 고해상도 슬림제품을 생산하는 '감광성 Ag패터닝 노광방식'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창립 이후 4년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금융기관 여신 지원을 번번히 거절당했다. 높은 차입 부채 비중과 열위한 수익성 등으로 신규 여신 상담 단계에서부터 가로막힌 것이다. 여기에 한줄기 빛이 되어 준 곳이 바로 우리은행 수원금융센터다.

우리은행은 기존의 재무현황을 주기반으로 하는 여신심사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기술력 보유를 바탕으로 기업의 미래가치를 보고 여신심사를 진행했다.

이 결과 ▲생산수율 향상 ▲원가절감 ▲점진적인 매출 신장 등으로 실질적인 운전자금이 필요한 적기로 판단, 지난해 20억원을 신규 운전 자금으로 대출해줬다.

또 여신 심사부서(기업금융부)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 기존 대출금 10억원의 상환을 유예했다.

이는 불과 1주일만의 결정으로 여기에는 우수한 기술신용평가(TCB) 등급과 계속기업 가능성에 방점을 둔 여신심사가 큰 역할을 차지했다.

이후 제이앤티에스는 현금매출거래선을 확대하고 종업원 200여명을 신규 채용할 수 있었다.아울러 지난해 11월 기술금융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기도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기관과 외부투자 유치 등 자본조달이 어려운 시점에 기술력 평가를 실시해 계속 기업으로 판단했다"며 "노광(露光) 공법 개발로 지난 2013년 4분기 이후 안정적인 매출 신장 추세를 유지하는 등 긍정적 지표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광구 은행장(사진 왼쪽)이 편의점 업계 최초로 GS리테일과 '협력업체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허승조 대표이사 부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제공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한국투자파트너스와 손잡고 1500억원 규모의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조성했다. 또한 GS리테일과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결제시스템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소매유통산업 2·3차 협력사까지 외상매출채권을 최소의 금융비용으로 현금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13년 금융권 최초로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한 우리은행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46개 대기업들과 금융권 최다 협약을 체결해 운영 중이다.

특히 만기가 하루인 초단기 외상매출채권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마친 상태다.

기술금융 실적 역시 두드러진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 4월말 우리은행의 기술신용대출 건수와 잔액은 각각 6233건, 3조9252억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연초부터 기술금융에 팔을 걷어붙이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그간 여신에만 편중된 기술금융 지원을 투자 분야까지 다변화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중견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기술개발 활성화와 기술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흥국생명의 감성 충전 프로젝트 흥국생명은 20일 이동진 영화평론가와 함께하는 '시네마 토크' 행사를 개최한다. 이동진 평론가가 추천하는 영화 '위아영'을 관람하고 평론을 청취할 수 있다. /흥국생명 제공

임종룡 "기업공시제도, 적시에 정확히"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9일 "기업공시제도는 기업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투자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정확하게 그리고 적시에 공시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정부의 역할은 정보의 양과 질의 균형을 맞춰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합리적 투자를 끌어낼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정보'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르면 다음주 금융개혁회의를 거쳐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정원기자 garden@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잘못 보낸 돈, 쉽게 되돌려 받는다"

금감원, 착오송금 반환절차 간소화 추진 소요기간도 3영업일서 2영업일로 단축

중소기업 경리담당자인 A씨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여러 건의 송금을 처리하던 중 '0'을 한번 더 눌러 10만원을 입금해야 하는 것을 100만원으로 잘못 보내고 말았다. 송금 직후 이 사실을 발견한 A씨는 거래 업체에 연락을 취해 차액을 돌려받았지만 아찔함을 느껴야 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비대면 송금 거래 확대 등에 따른 착오송금을 방지하기 위해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절차 간소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인해 송금금액이나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를 말한다.

이는 법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기 때문에 송금인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는 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특히 모바일뱅킹 사용 증가와 송금절차 간소화 등 비대면 송금 거래에서 착오송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중 은행에 청구된 타행 착오송금 금액은 1708억원에 달한다.

착오송금 관련 민원도 2013년 141건, 작년 175건으로 증가해왔다.

다만 '타행 착오송금 반환청구' 외에 '자행반환청구'나 수취인의 '자발적 반환'(반환동의서 제출 없이 반환) 등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아, 실제 착오송금 규모는 더욱 클 것이라고 금감원은 전망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 안으로 전자금융 서비스의 이체 프로세스를 개선키로 했다.

우선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주 쓰는 계좌'와 '최근이체' 기능은 CD·ATM 거래화면에도 적용한다.

또한 수취인 정보 조회 시 강조색 등을 활용해 송금정보를 강조하는 등 수취인 정보의 정확성 확인과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취인명 입력란을 신설하거나 송금을 5~10초간 지연하는 등 착오송금을 예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은행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착오송금 반환절차도 간소화된다.

그간 송금을 잘못했을 경우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 반환청구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콜센터를 통해 반환청구를 접수할 수 있다.

단 수취인의 '반환동의절차(출금동의)'를 콜센터를 통해 처리할 경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반환동의는 현행대로 영업점을 통한 접수방식을 유지키로 했다.

현재 최소 3영업일이 걸렸던 반환 소요기간은 2영업일로 단축하며 은행의 전산개발을 거쳐 실시간 반환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취은행은 수취인 접촉이력이나 미반환 사유 등을 송금은행에 전달해 송금인의 불안감을 경감시키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6월 말까지 각 은행이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청구절차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라며 "개선 방안 중 콜센터 반환청구 접수 등 조기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준비가 완료되는 은행부터 조속히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2015년 2학기 국가장학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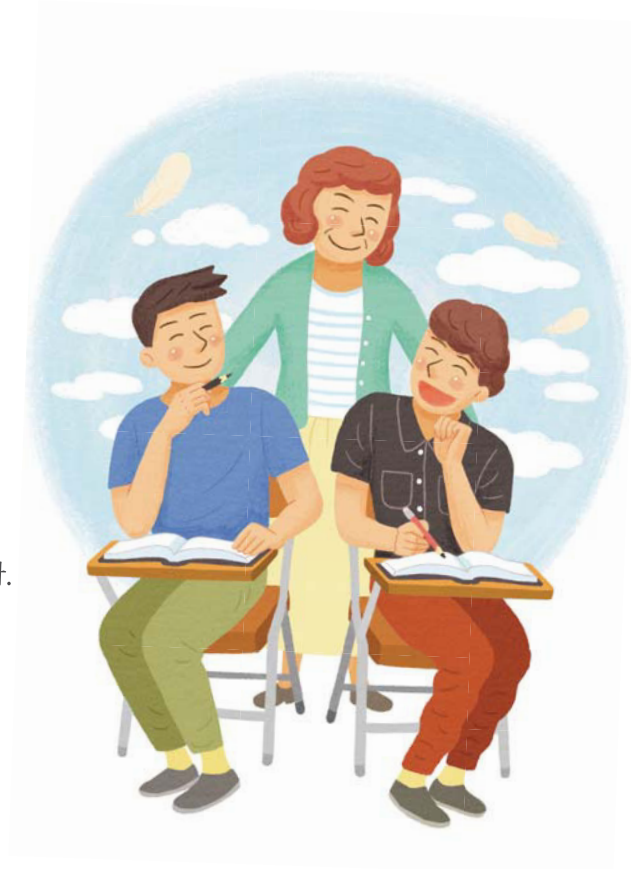
꿈을 위한 날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세요!

어린 시절 심한 경기를 앓아 장애를 얻은 큰 아들,
그리고 헌헌장부 남편을 쏙 빼 닮은 둘째 아들과 함께
우리 가족은 열심히 살아가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동업을 하던 남편의 친구가 자취를 감추기 전까지 말입니다.

빈손으로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 가족들…
딛고 서있던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두 아들의 꿈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 절망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에게 국가장학금이란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이 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같은 대학교에 들어간 두 아들의 입학식에서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날개를 달고 힘차게 날아오를 모습을 상상하니 기쁨에 눈물이 났습니다.

희망 깃털을 하나하나씩 꽂아 만든 날개로 제 아들들은
그리고 우리 가족은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제7회 정부학자금지원 수기공모전, 학부모 부문 최우수상 사례 中)

2015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2015. 5. 22(금) 9시 ~ 6. 10(수) 18시까지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www.kosaf.go.kr 접속 후 신청, 관련 문의 : 1599-2000)

지원기준 직전 학기 평점 80점 이상
(100점 만점 기준, 조건에 따라 70점 이상 80점 미만자도 수혜 가능)

☑ **반드시 가구원 정보제공에 동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학기 신청시 동의하신 가구원은 다시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삼성물산 "지구촌 사람들과 함께 살아요"

창간 13주년 相生

몽골·필리핀·인도 등서 '사랑의 집짓기' 활동

아이들에 꿈·희망 지원 교육인프라 구축도 활발

인도네시아 삼성물산 마을 1호 완공 후 지역민들에게 열쇠를 전달하고 있다(왼쪽). 삼성물산이 태국 촌부리주 반부앵지역에 취약계층 청소년의 취업을 돕고 자립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청소년 직업기술교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지하철 건설공사가 한창인 삼성물산 싱가포르 T213 현장. 불과 20m 떨어진 곳에 48명의 학생과 28명의 교직원이 다니는 시각장애인 학교(Lighthouse School)가 있다. 보통의 학교라면 큰 소음과 진동으로 민원이 있을 법도 하지만 이곳은 조용하다. 홍정석 삼성물산 현장소장은 '지역사회의 가치를 높이려는 진심'을 그 이유로 꼽았다. "지난해 초 이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처음 연락했을 때만 해도 협회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대부분 대외 홍보 자료로만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저희 현장은 작년 4월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달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민원은커녕 오히려 공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하는 과정은 싱가포르 현지 언론에도 소개가 될 만큼 큰 화제가 됐다.

삼성물산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건설회사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해외에 진출하는 게 아닌, 해당 나라의 소외된 이웃까지 끌어안음으로써 글로벌 책임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

우선 2000년부터 어려운 이웃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해비타트와 '사랑의 집짓기' 활동을 시작했다. 국내에서 시작해 지금은 몽골, 필리핀, 인도 등 해외까지 지역을 넓힌 상태다.

2013년부터는 글로벌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삼성물산 빌리지(Samsung C&T Village)'로 이름 짓고 보다 체계적으로 역할을 확대했다.

삼성물산은 그해 10월 인도네시아 파시르할랑 마을을 삼성물산 마을 1호 사업지로 선정해 낙후된 주택 110가구를 신축, 개·보수했다. 또 파시르할랑 마을의 심각한 식수위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수 공급시설 2곳과 위생시설 1곳을 설치했다.

지난해에는 인도 뭄바이 인근 암버르나스 지역을 삼성물산 2호 마을로 선정했다. 이곳에 50가구의 주택을 신축하고 81가구에 위생시설(화장실)을 설치했다. 아울러 2개 학교의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도 4월 착공했다.

삼성물산은 지역사회의 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인 '드림 투모로우(Dream Tomorrow)' 프로젝트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지역사회 아이들의 교육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해 수준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드림 투모로우 1호 사업은 인도네시아에 초등학교를 세우는 일이었다. 삼성물산은 2013년 11월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주 렘방(Rembang)지역에 초등학교를 건립하고 현지에서 완공식을 가졌다. 인도네시아 초등학교 학생들의 꿈 실현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이룬 것.

초등학교 건립으로 기존의 낡고 위험했던 학교건물이 도서관, 화장실, 식수시설을 갖춘 6개의 교실건축물로 새로운 모습을 갖췄다. 이를 통해 렘방지역 다다판(Dadapan) 마을 100여 명의 학생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삼성물산은 올해 드림 투모로우 2호와 3호 사업을 각각 태국과 베트남에서 벌일 계획이다.

우선 태국에서는 촌부리주 반부앵지역에 취약계층 청소년의 취업을 돕고 자립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청소년 직업기술교육센터를 건립한다. 베트남 하띤성 끼안현 지역에 공공도서관 을 세워 지역주민들에게 교육 기회를 줄 예정이다.

삼성물산 측은 "모두가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지역사회의 가치를 높이는데 신경을 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사회적 책임기업으로서 지구촌 사람들과 상생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동탄 린스트라우스…' 견본주택 개관

우미건설, 역세권 '원스톱 라이프' 복합단지로 개발

우미건설이 오는 22일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 C-12블록에 공급하는 '동탄 린스트라우스 더 센트럴'의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지하 3층, 지상 44층, 4개동, 아파트 617가구와 오피스텔 262실로 구성됐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아파트가 ▲75㎡A 161가구 ▲84㎡A 145가구 ▲84㎡B 127가구 ▲92㎡A 83가구 ▲92㎡B 18가구 ▲93㎡A 83가구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23㎡A 76실 ▲23㎡B 37실 ▲40㎡A 76실 ▲49㎡A 35실 ▲49B 38실이다.

아파트는 남향 위주 배치와 선택형 벽체 설치 등 다양한 특화설계를 도입했다. 특히 확장 시 주방 팬트리, 안방 워크인 드레스룸 및 파우더룸, 맘스데스크 등을 제공한다. 또 전 세대 공용욕실에 호텔식 카운터형 세면대를 설치,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계획이다.

오피스텔에는 환기가 쉬운 미닫이창을 설치하고, 실별로 계절창고를 둬 부피가 큰 짐을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실마다 인덕션 쿡탑, 빌트인 냉장고, 세탁기, 비데 등도 배치한다. 49㎡는 'ㄷ'자형 주방, 주방 팬트리, 드레스룸 등 넉넉한 수납공간까지 확보했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아파트가 1100만원, 오피스텔이 700만원 선이다.

아파트 청약일정은 27일 특별공급, 28일과 29일 1·2순위, 6월 4일 당첨자 발표, 9~11일 당첨자 계약이다. 오피스텔은 22~25일 4일간 청약접수를 받고, 26일 당첨자 발표를 거쳐 28일과 29일 양일간 계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용인시 동천동 901번지에 마련된다. 입주는 2018년 9월 예정이다. 문의 : 031-276-1100

/박선옥기자

SK건설 'EBRD 지속가능경영 모범사례상' 수상 SK건설은 시공 중인 터키 유라시아해저터널 프로젝트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이 주관하는 2015년 '지속가능경영 사회·환경 분야 최우수 모범사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 서석재 SK건설 전무(왼쪽 두 번째)가 수상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건설 제공

SH공사, 국민임대 637세대 공급

서울특별시 SH공사는 20일부터 상계보금자리지구·강일지구 등 20개 지구에서 국민임대주택 637세대를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노원구 상계지구에서는 전용면적 49㎡ 이하 115가구가 신규 공급된다. 이중 59가구는 노부모부양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소기업근로자, 3자녀이상가구와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된다.

이하 19개 지구에서는 39㎡ 152가구, 49㎡ 343가구, 59㎡ 27가구 등 기존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발생한 잔여공가 522가구가 공급된다.

전용39㎡와 전용49㎡의 경우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가구에게 먼저 공급된다.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월평균 소득 50%초과 70%이하인 가구에게 공급한다.

전용59㎡는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70%이하인 가구다. 경쟁이 있을 경우 1순위는 청약저축 가입 2년이 지난 자로서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인 자, 2순위는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지난 자로서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6회 이상인자다.

국민임대의 고령자전용 주택 일반공급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70%이하인 가구에게 공급한다. 1순위는 만 65세 이상이며 2순위는 만65세 미만 만 60세 이상인 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다.

우선공급 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자격상실자, 비닐간이 공작물 거주자, 3자녀이상가구, 신혼부부 등이다.

접수는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우선공급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6월 1일부터는 2순위자 접수를 받는다. 당첨예정자 발표는 8월 24일이다. /김형석기자 khs84041@

차별화 된 자산관리… 고객가치 '극대화'

창간 13주년 相生

미래에셋증권

고객 수익률 평가제 도입 개인연금계좌 수탁 증가

금융소비자보호 헌장 선포 '소비자 권익보호' 앞장

미래에셋증권이 단순한 고객 만족을 넘어 고객과의 동맹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부터 시행해온 '고객수익률 평가제도'와 '금융소비자보호헌장에 따른 소비자 권익보호'가 올 들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글로벌 자산배분을 통한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축, 수익률 제고를 통한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고객수익률 평가제도'를 지난해 7월부터 도입, 시행해오고 있다.

'고객수익률 평가제도'는 펀드·랩·ELS·DLS 등 모든 금융상품과 주식을 대상으로 전체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평가하는 것이다. 고객수익률 평가를 특정자산에 치우치지 않고 자산배분을 통한 고객수익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다. 평가는 개인고객 100명 내외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 제도를 통해 한 계좌 내 다양한 상품을 편입할 수 있는 프리미어 멀티랩어카운트와 개인연금저축계좌의 수탁고가 증가하고 있다. 프리미어 멀티랩어카운트는 1:1 맞춤식 투자일임형 랩어카운트로 지점의 전담관리자가 직접 운용한다.

변재상 미래에셋증권 대표(왼쪽 네 번째)와 임직원들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고객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2월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선포식'을 열었다. /미래에셋증권 제공

이에 앞서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2월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선포식을 개최하고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임직원의 의식을 고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국내외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다양한 금융신상품의 출현 속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요구는 날로 커지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에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을 마련, 금융소비자보호를 건전한 기업문화로 정착시키고자 했다.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은 첫째,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이행하도록 했다. 둘째,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과 요구 등을 고려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자산관리 전문가로서 책임 있는 영업행위로 금융소비자보호를 실천하도록 했다.

미래에셋증권은 "눈앞의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기 보다는 고객 한 분, 한 분이 만족할 수 있도록 글로벌 자산배분을 통해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자산관리 서비스를 더욱 차별화해 최적화된 자산배분 솔루션을 제공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상품개발의 '혁신'을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보배기자 bobae@metroseoul.co.kr

안팎서 훈풍… 건설株, 7년 만에 반등 노린다

국내서 끌고

올 주택분양 계획 확대 주요 6개사 물량 최대

해외서 민다

주요 저가공사 마무리 전문가, 수익 증가 전망

국내 주택시장과 해외 건설시장의 동반 상승으로 7년 만에 건설업종의 주가가 반전을 이룰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다수 전문가들은 "올해 주택 분양 계획 확대에 따라 건설업종의 주가 반등이 기대된다"고 진단했다.

이선일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 10여 년간 건설사의 주가는 주택과 해외부문 모두 이익이 증가할 때만 올랐다"며 "올해는 호황에 가까운 분양시장 성과와 해외 주요 저가공사 마무리로 주택과 해외부문 모두 이익이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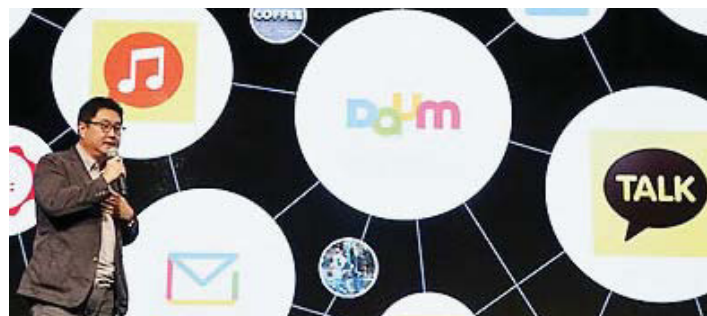
실제로 올해 1분기 삼성물산을 제외한 5개 건설사의 주택부문 수주액과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88.0%, 7.0% 늘었다.

이 연구원은 "올해 주요 건설 6개사의 분양 예정물량은 지난해 보다 72.4% 증가해 역대 최대인 12만 9000가구에 이를 것"이라며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과 규제 완화, 저금리 등으로 분양시장 호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해외부문은 추가 부실이 크게 줄어 올해부터 수익성이 의미있게 반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주택과 해외부문 개선으로 이익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대림산업을 업종 '최선호주'로 제시하고 GS건설과 대우건설도 추천했다.

강승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부터 이익률이 양호한 주택부문 매출 확대와 해외 원가율 개선으로 건설업종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강 연구원은 "대형건설사의 1분기 주택부문 실적은 준공차익과 예정원가율 변경 등으로 이익률이 개선돼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며 "해외부문은 지난 2010~2012년 수주한 악성사업지에서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해 예상보다 부진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주택부문의 예상보다 빠른 이익률 개선과 해외부문의 정상화 가능성을 확인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강 연구원은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건설업황 개선을 감안해 턴어라운드가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대림산업, 대우건설을 건설업종 최선호주로 꼽았다.

김선미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분양가 상승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면서 "재건축보다는 주택 수요에 탄력적인 일반분양 위주로 공급하는 GS건설, 대우건설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민지기자 minji@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 다음카카오는 최근 록앤롤이 서비스하는 '국민내비 김기사'를 인수키로 하는 등 모바일 사업부문에 대한 공격적 투자로 실적 개선을 꾀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카카오, 실적 부진에도 주가↑

광고·게임 예상치 밑돌자 모바일 공격 투자 승부수 19일 종가 전일比 4.21%↑

코스닥 시장에서 다음카카오 주가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카카오는 올해 1분기 광고와 게임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하고 모바일광고 부문 하락폭도 확대되는 부진한 성적을 냈다. 이에 다음카카오는 록앤롤이 서비스하는 '국민내비 김기사'를 인수키로 하는 등 모바일 사업부문에 대한 공격적 투자로 실적 개선을 꾀하고 있다.

19일 다음카카오의 주가는 전일보다 4500원(4.21%) 오른 11만 1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6억8500만원, 30억 1700만원어치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다음카카오는 지난 1월 26일 장중 한때 16만원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지난 7일에는 장중 9만9000원까지 떨어지며 연중 최저점을 찍기도 했다.

다음카카오의 지난 14일 실적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234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동기 대비 19% 늘었지만 지난 4분기 보다는 8% 감소했다. 영업이익 또한 40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0% 하락했다. 순이익은 30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3% 줄었다.

다음카카오의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시장 반응은 크게 요동치지 않았다.

황승택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게임 부문의 성장둔화가 우려되는 시점에서 모바일광고 중심의 성장전략은 최선의 선택으로 판단된다"며 "카카오톡 사용자의 충성도제고와 검색 트래픽 증가로 추가적인 광고매출 확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로의 관문(포털) 역할에 대한 기대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으로 진단했다.

다음카카오는 오는 19일 '국민내비 김기사'를 서비스하는 록앤롤의 지분 100%를 629억원에 인수하는 방안을 이사회에서 통과시켰다. 다음카카오는 합병 후 지도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용자 위치와 동선을 파악해 적절한 오프라인 정보를 제공하는 로컬시장 공략을 준비하고 있다.

또 방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O2O 사업에 도전하고 있다. O2O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라는 의미로, 오프라인 서비스나 상품을 온라인으로 연결해주는 것을 말한다. 카카오택시와 네이버가 일본에서 시작한 라인택시 등이 이에 속한다. /김보배기자

신한금융투자

모바일 거래왕 찾아라 MTS 고객에 경품 증정

신한금융투자는 다음달 12일까지 '신한i smart'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주식 또는 ETF를 거래하는 고객에게 다양한 상품을 증정하는 '모바일 거래왕(王)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신한i smart'는 신한금융투자의 증권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이다.

이벤트 기간 동안 일간 추첨을 통해 하루 거래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고객 50명을 추첨해 커피 기프티콘을 지급한다. 3억원 이상인 고객 1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한다.

주간 거래금액 상위 고객에게는 최대 20만원 백화점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보배기자

BMW-벤츠 대표, 경영실적 극과 극

BMW코리아
김효준 사장 소통 강화
국내 수입차 1위 '굳건'

벤츠코리아
브라질 대표로 선장 교체
실적 뻥튀기에 위상 실추

김효준 BMW코리아 사장　디미트리스 실리키스 벤츠코리아 신임대표

BMW코리아에 밀려 만년 한국 시장서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야심차게 디미트리스 실리키스 브라질법인 사장을 한국대표로 임명했다. 하지만 업계는 김효준 BMW코리아 사장의 적수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19일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실리키스 대표는 세계 자동차업체 3위로 꼽히는 벤츠가 브라질 시장에서는 맥을 못추고 정체기로 이끈 전문경영자"라며 "벤츠코리아 대표 발탁은 한국시장을 만만하게 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실라키스 대표는 벤츠 브라질법인 대표이사로 지난해부터 재임하며 판매 실적을 두 배로 증가시켰다고 벤츠코리아는 보도 자료를 통해 지난 13일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다임러그룹 사업보고서에는 그가 벤츠브라질법인 대표로 재임하기 전인 2013년 34% 성장했던 것과 달리 부임 후 지난 한 해동안 고작 6% 성장에 그친 것으로 본지가 확인해 '실적 뻥튀기' 논란이 일고 있다.

벤츠 측은 "그리스와 브라질 시장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으로 한국 시장에서도 벤츠 브랜드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브라질 시장서 이렇다 할 성과도 내지 못하고 시장정체의 쓴맛을 본 사장을 한국 대표로 임명한 것은 사실상 한국시장을 가볍게 여긴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반면 김 사장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BMW코리아의 국내 시장 확대를 이끌었다. 때로는 온화한 성품을 바탕으로 직원들과 허물없이 대화하는 친화능력도 국내 수입차 시장 1위를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차를 팔지 않고 고객이 찾게 한다는 그의 경영철학은 정비인력 증가, 시설 확충으로 이어졌다. 김 사장은 지난 2000년 BMW에서 그룹 최초 현지인 사장으로 임명돼 최초 아시아인 본사 임원(2003년), 본사 수석 부사장(2013년) 등을 역임하며 종횡무진 활약했다.

김 사장은 독일 BMW본사에 한국 시장의 영향력과 중요도를 강조해 직원들이 업계에서 맘껏 능력을 펼치도록 유도했다. 이에 BMW는 BMW코리아 직원 12명을 임원으로 승진시켰다.

올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는 "BMW코리아 직원도 해외 업계 임원으로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며 "BMW코리아 직원이 전무로 승진하면 가능한데 본사 측에 이 부분을 반드시 설득시키겠다"고 말했다. 이후 실제로 2명의 직원이 전무로 승진했다.

또 김 사장은 BMW코리아미래재단을 통한 사회 공헌활동과 인천 영종도 드라이빙 센터 구축을 위해 770억원을 국내에 투자하는 등 본사로부터 투자를 이끌어 내 수익 대부분을 본사로 송금한 벤츠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벤츠코리아는 지난해 순이익 중 절반 이상인 484억원을 외국계 대주주에게 배당금으로 보냈다. 이는 2013년 173억원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BMW코리아는 2010년 이후 독일 본사에 배당을 하지 않고 한국시장에 재투자하거나 사회공헌 등을 통해 이익을 환원하고 있다.

양사는 기부에서도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BMW코리아는 지난해 39억4500만원을 기부하며 수입차 업계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반면 벤츠코리아의 기부금 등 사회공헌 금액은 11억원이었다. 벤츠코리아의 순이익은 BMW보다 4배 이상 많지만 사회공헌에서는 인색한 편이다.

/정용기기자 yonggi@metroseoul.co.kr

SK하이닉스 "무사고 사업장 만든다"

종합 안전대책 발표

SK하이닉스(대표 박성욱)는 무사고 사업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종합 안전 대책을 19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지원 하에 안전경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11일 경기도 이천 본사에서 CEO 주관으로 열린 안전관리 비상임원회의에는 모든 임원들이 참석해 안전결의 선서와 함께 안전 대책에 관해 의견을 모았다. 회사의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한 내용이 논의됐으며, 안전조직 강화와 외부 기관으로부터의 객관적 진단 및 임직원 안전의식 고취, 협력사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을 모두가 공감했다.

이를 위해 SK하이닉스는 CEO 직속으로 '특별 안전 점검단'을 신설한다. 점검단은 기존 안전 전담 조직인 환경안전본부와 별개로 운영되며 반도체 제조 기술·설비·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단장은 장성춘 수펙스(SUPEX) 추구협의회 SHE 경영팀장(전무)이 맡는다. SK그룹 차원에서 SK하이닉스의 안전 관리에 직접적으로 노력을 기울인다는 의미다.

또한 SK하이닉스는 기존 안전조직의 인원을 두 배로 늘리고 CEO의 지휘 아래 더 많은 전문 인력들을 통해 안전 관리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세계적 수준의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외부 진단도 실시할 계획이다. 협력사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의 안전관리 강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임은정기자 eunj71@

르노삼성 'SM3 Z.E.' 서울 전기택시 낙점

르노삼성자동차(대표이사 프랑수아 프로보)는 자사의 전기차 SM3 Z.E.(사진)가 산업통상자원부의 관용 전기차량 공동 구매 입찰과 서울시 전기택시 보급사업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 업무승용차 중 전기차 25% 이상 의무 구매해야 하는 고시에 따라 공공기관 관용전기차 공동구매를 실시했다.

SM3 Z.E.는 정부의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전기차 공동 구매 사업에 첫 번째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SM3 Z.E.10대를 투입해 진행한 전기택시 실증사업을 마치고 하반기부터 40대로 확대 운용하기로 결정했다.

르노삼성차는 1시간 이내 충전이 가능하고 기사식당 등 좁은 공간에 설치 가능한 중급속 충전기로 충전 문제를 해결해 전기택시 상용화를 앞당길 계획이다. /양소리기자 10sound@

|르포| 쌍용차 티볼리 생산 평택공장 가보니…

쉴 새 없는 라인… 시간당 19대 생산

내달부터 디젤 모델 수출
국내 시장엔 7월 중 출시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근무자들이 차량 조립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쌍용차 제공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땀방울과 함께 티볼리의 차체가 하나 둘 완성돼가고 있었다. 19일 티볼리 생산 전량을 만들고 있는 경기도 칠괴동의 쌍용차 평택공장을 방문했다. 날씨는 흐리고 비가 왔지만 넘쳐나는 티볼리 수요에 대응하고자 그들은 24시간이 모자를 정도로 부지런히 자신의 일에 열중하고 있었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나온 차체 생산라인 근무자 장성훈(가명)씨를 만났다.

장씨는 "바쁘죠, 하지만 좋습니다. 지난 2009년 파업 때부터 쌍용차와 함께 온갖 고생을 겪어온 노동자들은 티볼리야말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며 "티볼리 때문에 일이 많아져서 몸은 힘들지만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으니 생산량이 확대돼 투자가 많이 이뤄져서 더 일감이 많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옥준 차체1팀장과 함께 차체 생산라인에 들어선 순간 영화 트랜스포머를 연상케 하는 용접 로봇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끊임없이 불꽃을 튀기며 프레스 과정을 거친 차체부품들을 모아 하나하나 용접해 갔다. 차체 하나가 골격을 갖추기 위해 선 1600번의 용접 횟수와 정교한 작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사실에 다시한번 근로자의 땅방울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차체 생산라인 공정에서는 엔진 장착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엔진룸공정부터 차체의 앞, 뒤, 옆을 용접로봇들이 작업자가 입력한 데이터에 따라 끊임없이 용접을 해 차의 기본 골격을 완성시키고 있었다.

조립라인에 들어서자 섬세한 분위기가 풍겼고 정확한 조립을 위해 차를 환하게 비추는 형광등이 가로수처럼 줄지어 이어졌다. 조립 라인은 의장, 섀시, 최종검정 라인으로 이뤄져있었다. 의장라인에서는 차체 내부의 부품, 배선 등을 조립하기 위해 작업자들이 신속정확하게 한 몸처럼 움직여 오랜 시간 함께 해온 팀워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섀시라인에서는 엔진, 타이어를 비롯해 차의 중요한 부품들이 조립됐다. 최종검정라인에서는 모든 부품들이 정확한 곳에 제대로 조립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쌍용차 평택공장은 86만㎡(26만평)의 부지에서 티볼리, 코란도, 체어맨 등을 생산하고 있다.

평택공장은 총 3개의 생산라인으로 연간 25만대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티볼리와 코란도C를 생산하는 조립1라인은 주·야간 2교대에 잔업까지 해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간다. 시간당 생산량은 19대다. 현재 조업률은 82%. 쌍용차는 티볼리를 시작으로 매년 1개 이상의 신차 출시를 계획하고 향후 3~4년 안에 공장 조업률 100%를 목표로 하고 있다. /평택=정용기기자

나눔 vs 밀당 vs 영상… 당신의 요금제는?

통신3사 '데이터 요금제' 경쟁

SKT – 데이터 선물 확대
KT – 이월·당겨쓰기 지원
LGU+ – 영상 서비스 강화

SK텔레콤이 19일 이동통신 3사 중 마지막으로 데이터중심 요금제를 출시했다. 이로써 이통3사가 모두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내놓았다.SK텔레콤의 참여로 KT, LG U+간 불꽃튀는 경쟁이 예상된다. 3사는 기본 얼개는 유사하면서도 자사 기존 서비스와 고객층에 특화된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차별화를 도모했다.

이통3사는 음성과 문자를 모든 요금제에서 무제한 제공하고,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요금제가 달라지는 기본 구조는 같다. 기본료 2만 9900원부터 출발하며 3사 모두 약정과 위약금을 없앴다.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도 20% 적용 가능해 기본료보다 좀 더 낮은 요금에 데이터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동통신 3사 데이터 요금제 비교 (월정액 단위:천원)

SK telecom 월정액	음성	데이터	부가	kt 월정액	음성	데이터	부가	LG U+ 월정액	음성	데이터	부가
29.9	유·무선 무제한	300M	모바일 IPTV	29.9	무선 무제한	300M		29.9	무선 무제한	300M	
36		1.2G		34.9		1G		33.9		1G	
42		2.2G		39.9		2G		38.9		2G	
47		3.5G		44.9		3G		-		-	
51		6.5G		49.9		6G	모바일 IPTV	49.9		6G	모바일 IPTV
-		-		54.9		8GB		-		-	
61		11GB		59.9		10GB		59.9		10GB	
80		20GB		69.9		15GB		69.9		15GB	
100		35GB		99.9		30GB		99.9		30GB	

SK텔레콤은 1.2GB, 2.2GB, 3.5 GB, 6.5GB, 11GB 등 구간별로 데이터 제공량이 경쟁사보다 약간 많다. 대신 가격도 조금 비싸다. 1GB 요금제가 KT는 3만4900원, LG유플러스는 3만3900원인 반면에 SK텔레콤은 3만6000원이다. 데이터 무제한이 시작되는 10GB 요금제는 KT와 LG유플러스가 5만9900원, SK텔레콤이 6만1000원이다.

SK텔레콤이 모든 요금제에서 무선과 유선통화를 무제한 제공하는 것도 타사와 다른 특징이다. KT는 4만9900원 요금제까지 무선통화만 무제한 제공하고, 5만4900원부터 유선통화도 무제한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모든 요금제에서 무선통화가 무제한이고, 유선통화는 무제한 서비스가 없다.

◆KT '밀당' SK텔레콤 '나눠쓰기' LGU+ '비디오' 각양각색

데이터 활용법은 각 통신사마다 다르다. KT는 개인별 데이터 활용이 자유롭도록 '밀당' 서비스를 지원한다. 밀당은 데이터가 남으면 다음 달로 이월하고, 부족하면 다음 달치를 당겨쓸 수 있도록 했다. SK텔레콤은 남는 데이터를 선물할 수 있는'자유자재' 서비스로 맞대응했다. 1회 1GB, 월 2회 선물이 가능하다. SK텔레콤은 '리필' 쿠폰을 1년에 1~2회 발급해 자신의 요금제와 동일한 양의 데이터를 무료 충전할 수 있도록 했다.

LG유플러스는 'LTE 데이터 중심 Video(비디오)' 요금제를 따로 출시해 '비디오'를 전면에 내세웠다. 기본 데이터 외에 비디오 서비스 전용 데이터를 추가 제공한다. 최저 요금제(월 3만7000원)는 모바일 IPTV(인터넷TV) 'U+HDTV' 전용 데이터를 매일 1GB 제공한다. 월 4만5000원 이상 요금제는 영화·HBO 무제한 서비스 '유플릭스 무비'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문경기자 hm0108@metroseoul.co.kr

1분기 글로벌 TV시장, 삼성 '뒷걸음' LG '잰걸음'

삼성 2.2%p↓·LG 0.7%p↑

올해 1분기 글로벌 TV 시장에서 팔린 TV 10대 중 4대 이상이 한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약간 떨어졌고, LG는 소폭 상승했다.

19일 시장조사기관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2015년 1분기 TV 시장 점유율(매출액 기준) 순위는 삼성이 27.1%로 1위, LG전자가 16.1%로 2위를 기록했다. 일본의 소니(7.1%)와 중국의 하이센스(6.2%)와 스카이워스(5.4%)가 뒤를 이었다.

전분기 점유율과 비교해 삼성전자는 2.2%포인트 하락했고, LG전자는 0.7%포인트 상승했다. 양사의 격차는 13.9%포인트에서 11.0%포인트로 좁혀졌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점유율 합계는 43.2%로 전분기(44.7%)보다 1.5%포인트 떨어졌다. 톱 10 내 중위권을 형성하는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이 약간씩 올라가면서 한국 업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이다.

삼성전자는 55인치 이상 대형 프리미엄 라인 점유율을 전분기 35.9%에서 1분기 36.2%로 소폭 끌어올렸다. 또 이번에 디스플레이서치가 처음 집계한 커브드 TV 부문에서 삼성은 82.9%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했다. LG가 10.2%로 2위, 하이센스가 4.2%로 3위였고 소니는 0.9%에 불과했다.

판매 수량 기준으로 따진 전체 TV 시장 점유율은 삼성 20.3%, LG 14.8%로 양사의 격차는 5.5%포인트로 나타났다. 수량 기준도 삼성은 전분기보다 3%포인트 떨어졌고 LG는 1.1%포인트 높아졌다. /조한진기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왼쪽)이 19일 서울 남대문 밀레니엄힐튼 호텔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정 회장과 모디 총리는 이날 한·인도 간 자동차산업 협력과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현대자동차 제공

정몽구 회장 "인도 제3공장 검토"

모디 인도 총리 면담
양국 車산업 협력 논의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19일 서울 남대문 밀레니엄힐튼 호텔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만나 한-인도 간 자동차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 회장은 인도 제3공장 건설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 자리에서 "현대차의 인도 첸나이 공장은 한·인도 경제협력의 상징"이라며 "현대차가 인도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인도 정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는 올해 첸나이 2개 공장에서 지난해 보다 약 4% 성장한 64만대를 생산하고 판매할 계획"이라며 "이중 47만대는 인도 국내에 공급하고 17만대는 세계 110여개 국가로 수출해 인도의 자동차 수출 1위 기업으로서 수출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디 총리는 "인도 자동차산업의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 현대차그룹 회장을 만나게 돼 반갑다"며 "현대차그룹과 인도의 자동차산업 협력 관계가 지속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인도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또 "인도와의 자동차 협력 관계를 통해 세계 3위권의 글로벌 자동차 회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도 현지 언론에서는 수년 전부터 현대차가 3번째 공장 건설을 추진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정 회장은 모디 총리를 면담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3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 자동차 시장은 모디 총리 취임 이후 회복세로 돌아서 지난해 3.2% 증가했다. 올해 성장전망치는 7.8%로 사상 최대치인 274만대에 달할 전망이다.

현대차는 1997년 인도에 진출했다. 지난해 인도시장에서 자동차 41만여대를 판매, 시장점유율 16.2%로 2위 자리를 지켰으며 현재 연간 60만대의 생산 능력을 갖췄다. /양소리기자 10sound@

이승훈 vs 전대천… 가스公 차기 사장 '2파전'

내달 주총 거쳐 선임

한국가스공사 차기 사장 후보 윤곽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가스공사 차기 사장 후보에 이승훈(70) 서울대 명예교수와 전대천(63)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유력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교수는 대구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노스웨스턴대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고 1988~2010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지냈다.

전대천 전 사장은 경북 문경 출신으로 대구 계성고와 서울대 영어교육과·법학대학원을 나왔다. 행정고시 26회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부이사관,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원장, 가스공사 부사장을 역임했다.

가스공사는 다음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할 예정이다. 이후 6월 중·하순으로 계획된 주주총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확정된 후보에 대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길기자 sweatsk@

효성, 6·25 참전용사 주거사업에 1억 전달

효성은 충남 계룡시의 육군본부에서 6·25 참전용사를 위한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달식에는 장형옥 효성나눔봉사단장, 김규하 육군 인사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은 참전용사 중 생활여건이 이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다. 효성은 2012년부터 4년째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장형옥 효성나눔봉사단장(부사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참전용사들의 거룩한 희생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자 작은 정성을 마련했다"며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우고도 힘든 노후를 보내고 계시는 참전용사들의 주거환경개선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소리기자

현대百, 신도림 디큐브시티 오늘 개장

식품매장·키즈카페 등 '가족 중심'으로 새단장

2017년 매출 4000억 목표 "서울 서남부 상권 잡겠다"

서울 신도림 디큐브백화점이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로 새롭게 태어난다. 현대백화점은 디큐브시티 오픈을 계기로 서울 서남부 상권 본격 공략에 나선다.

김영태 현대백화점 사장은 20일 공식 개장에 앞서 19일 서울 신도림 디큐브시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침체에 빠진 서울 서남부 상권을 디큐브시티를 중심으로 새로운 '유통문화의 장(場)'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이 JR자산운영으로부터 20년 장기 임차한 디큐브시티는 연면적 11만6588㎡, 영업면적 5만2893㎡로 지하2층~지상6층 규모다. 현대백화점 14개 점포 가운데 중동점과 목동점, 대구점에 이어 네 번째로 크다.

현대백화점은 디큐브시티를 '가족 중심'의 쇼핑 공간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기존 디큐브 백화점은 업계 최고 수준의 식품매장과 식당가, 생산·유통 일괄 의류업체(SPA) 패션 브랜드로 젊은 고객을 잡는 데는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중저가 브랜드 위주로 매장을 구성해 백화점 최대 소비층인 30~40대 소비자들에게는 외면을 받았다.

현대백화점은 기존 입점 브랜드와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8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매장을 리뉴얼해 아동·가정용품·식품 등 가족 중심의 MD(상품기획)로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공식 오픈하는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 외관. /현대백화점 제공

1단계로 가장 공을 들인 곳은 1018㎡(308평) 규모의 지하2층 식품 매장이다. 현대백화점의 강점인 정육과 청과 등 신선식품을 강화해 40대 이상 주부 고객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8월까지 한섬 브랜드 등을 중심으로 영캐주얼 브랜드를 보강한다. 10월에는 골프·스포츠와 아동·유아 브랜드도 대거 입점하며 331㎡(100평) 규모의 '키즈 카페'도 개장한다. 내년 3월엔 핸드백과 란제리 브랜드를, 내년 연말엔 가전·가구 등 가정용품 브랜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백화점 중 유일하게 서울 서남부 지역에 진출하지 않았던 현대백화점의 디큐브시티점 오픈에 따라 백화점 3사의 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서남부 지역 상권에는 롯데백화점 영등포점과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복합쇼핑몰 타임스퀘어 등이 있다.

김 사장은 "디큐브시티는 최근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쇼핑몰 구조로 돼 있으며 하루 유동인구가 13만명에 이를 정도로 좋은 위치에 있다"며 "그동안 미흡했던 백화점 최대 소비층인 40대 소비자들이 원하는 MD 구성으로 구로구에서 영등포구·동작구·금천구, 광명시 소비자까지 포용해 2017년 40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피자헛, 창립 30주년 기념 통토핑 '썸피자' 10종 출시 피자헛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피자헛 치킨 청계점에서 '썸피자'를 소개하는 사진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신동빈 회장, 모디 총리와 투자방안 협의

롯데제과, 국내 제과업체 최초 현지사업 진출
초코파이 新공장 7월 준공 등 진출 지역 확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이 19일 서울 중구 힐튼호텔에서 국빈 방한 중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만나 현지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신 회장은 "인도는 모디 총리의 경기부흥 정책으로 해마다 7%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등 매력적인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롯데는 현재 다양한 현지 투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그룹은 롯데제과가 1990년대 말 수출을 시작하면서 인도와 첫 인연을 맺었다. 2004년에는 현지 제과업체인 패리스사를 인수해 국내 식품 기업으로는 가장 먼저 현지 사업에 진출했다. 롯데제과는 2010년 첸나이 지역에 초코파이 생산공장을 준공

했다. 현재 델리 지역에 건설 중인 신공장이 올해 7월 준공되면 롯데제과는 12억 인구의 인도 남북을 잇는 초코파이 벨트를 구축하게 된다.

롯데는 인도에서의 인지도를 발판으로 주변국과 중동, 아프리카까지 진출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은미기자 21cindiun@

KT&G 저발화성 담배 전제품 확대

독자 개발 기술 '블루밴드'

KT&G(사장 민영진)는 독자적인 담배제조 기술인 저발화성 '블루밴드(Blue Band)'를 전 제품에 확대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저발화성 담배란 일정조건 하에서 담뱃불이 꺼질 확률을 높인 제품을 말한다. 7월 22일 이후 국내 담배 제조공장에서 출고되는 모든 제품에는 저발화성 담배 적용이 의무화된다.

KT&G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블루밴드는 고속으로 진행되는 담배 제조 공정 중에 천연 특수물질을 궐련지에 코팅하는 기술이다. 미리

코팅한 궐련지를 공정에 투입하는 외국의 기존 제조방식보다 한 단계 더 진화된 방식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KT&G는 2010년 사내 학습동아리의 아이디어로 저발화성 기술 개발을 시작해 약 3년 동안 70여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했다.

블루밴드의 전제품 확대 적용에 따라 저발화성 궐련지 수입 대체 효과로 연간 400억원 이상의 외화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됐다.

롯데제과 국제품질인증

롯데제과(대표 김용수)는 수출용 초코파이·빼빼로가 제과업계 최초로 국제 관능 품질 평가 어워드 기관인 iTQi(International Taste & Quailty Institute)로부터 우수 품질 인증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iTQi는 2005년 벨기에 브뤼셀에 설립된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식음료 품질 평가 기관이다. 현재 펩시·코카콜라·네슬레 등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이 인증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iTQi의 품질 평가에는 미슐랭 가이드에 소개된 셰프와 소믈리에 120명이 참석,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아모레퍼시픽(대표이사 서경배)은 방문판매원 아모레카운셀러가 함께 전개하는 상반기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이 원광대학교병원을 시작으로 두 달간 진행된다고 19일 밝혔다.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는 암 치료 과정에서 피부변화와 탈모 등 급작스러운 외모 변화로 인해 고통 받는 여성 암 환우들에게 메이크업 및 피부관리, 헤어 연출법 등 스스로를 아름답게 가꾸는 노하우를 전수하는 캠페인이다.

지난 2008년에 시작된 이래 지난해까지 총 9221명의 여성 암 환우와 2904명의 아모레 카운셀러 자원봉사자가 참가했다.

제2의 짜파게티 '짜왕'

농심(대표 박준)은 '프리미엄간짜장'을 표방하며 선보인 '짜왕'이 출시 한 달만에 600만봉 이상 판매되면서 9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소비자가격(1500원)으로 환산하면, 국내 라면매출 순위 5위권 내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농심은 이 같은 짜왕의 인기에 힘입어 생산량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기존 안성과 부산공장에서 구미공장으로 생산라인을 확대해, 짜왕의 인기를 이어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소규모 유통채널에서 짜왕의 입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향후 해외 수출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금수광산

폐광산도 관리하면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됩니다

국내 유일의 광해관리 전문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광산개발로 훼손·오염된
자연과 환경을 복구하고, 폐광으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 일·가정 양립 '스마트워크' 정착

연중기획 가정이 있는 직장

⑬ LG생활건강

LG생활건강 스마트스테이션 사무실 전경.

유연근무제·정시퇴근제 등 업무 효율화
영업직 '스마트스테이션'… 전화·메일로 보고

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은 '스마트워크'가 잘 정착된 대표적인 회사다.

'스마트워크'란 주어진 시간에 더 많은 성과를 내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 덕분에 직원들은 퇴근후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등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늘었다.

차석용 부회장도 CEO메시지 '일과 삶의 균형'편을 통해 "회사만이 전부는 아니고 회사 외에도 남편·아내·자식·부모·친구로서의 역할이 있고 이런 삶의 중요한 부분들 간의 균형을 맞춰 나가야 한다"며 "일찍 들어가서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책을 읽고, 눈을 맞추고, 대화를 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스마트워크 정착을 위해 '유연근무제'와 '정시퇴근제'를 시행하고 있다.

직원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존 2가지 출·퇴근 시간대(오전 8시→오후 5시, 오전 9시→오후6시)만 운영하던 것을 5가지로 나눴다. 오전 7시→오후 4시, 오전 7시30분→오후 4시30분, 오전 8시→오후 5시, 오전 8시30분→오후 5시30분, 9시→오후 6시 등 5가지 시간대 중 직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이 같은 제도가 제대로 시행된 데에는 시간관리·이메일·보고문화 등에 업무 효율성을 개선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

LG생활건강 스마트워크 제도
유연근무제 · 정시퇴근제
시간관리 · 보고문화 등 효율성 개선
스마트스테이션

효율적인 시간관리를 위해 외부 회의시간을 계획할 경우 직원들에게 출근 또는 퇴근시간과 연계되도록 일정을 잡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 결과 출근길에 외부회의에 참석하거나 오후 4시 이후 외부 회의 일정을 잡고 회의가 끝난 후에는 사무실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퇴근하는 문화가 정착됐다. 외부 업무가 많은 영업직군의 경우 거점별로 마련된 '스마트스테이션'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메일로 업무 요청이 필요한 직원은 수신자에게 '정보공유' 목적인지 '업무요청' 목적인지 명확하게 하고 수신자는 가급적 확인하는 즉시 답변을 준다.이는 전화나 메신저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업무 확인을 하지 않도록 요청자와 수신자 서로를 배려하기 위함이다.

업무를 보고 할때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충분한 토론을 통해 의사결정이 필요한 중요한 내용의 경우에만 대면보고를 한다. 가급적 전화·메일·메신저 등을 통해 적시에 상사에게 알리는 효율적인 보고문화가 자리잡았다.

스마트워크 정착으로 LG생활건강의 실적도 가파르게 성장했다. 2005년 매출 9678억원, 영업이익 704억원이었던 연간 실적은 지난해 매출 4조6770억원, 영업이익 5110억원을 기록했다. 10년 연속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신입사원이나 경력사원 지원자들의 경우 LG생활건강의 고유한 문화로 정착된 정시퇴근제와 유연근무제, 스마트워크 등 스마트하게 일하는 효율적인 조직 문화를 미리 알고 입사지원 하는 경우가 많다"며 "CEO의 지속적인 관심과 전 직원의 적극적인 변화관리 등으로 실제로 스마트한 업무방식이 가장 잘 지켜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공동기획 :

"누구나 능력 펼칠 수 있는 회사"

여성 직원 비율 54%, 임원 13%… 존중 문화 정착

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은 화장품·생활용품 등 다양한 사업군을 통해 여성 소비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업종 특성상 여성 인력이 절실한 만큼 매년 여성 인력 채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성별을 떠나 각자의 능력을 존중하고 오로지 실력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누구나 마음껏 능력을 펼칠 수 있는 회사로 알려지면서 대학생들이 취업하고 싶은 회사로 자리잡았다. 특히 많은 여성들의 지원으로 신입사원 채용 경쟁률이 보통 100 대 1을 넘는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여성 직원 비율 역시 절반을 넘는다. LG생활건강 전체 직원 약 4000여 명 중 54%가 여성이다.

또 여성 임원 비율은 전체의 13%로 승진에 남녀 차별이 없다는 회사 경영 철학을 엿볼 수 있다. 우리나라 대기업 4곳 중 1곳만이 여성임원이 있고 30대 기업 여성임원 비율이 1.9%라는 조사결과를 감안하면 높은 수준이다.

또 지난해부터는 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사회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영업지원과 문서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2012년부터는 '일등품격교육'을 통해 임직원의 품격있는 언행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를 공유하는 등 남녀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도 정착시키고 있다.

LG생활건강 CHO 김흥식 상무는 "LG생활건강 고유의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도 발전시켜 여성 인력이 가정도 챙기고 일에도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서울메트로 전국미술대전 작품 공모

한국화·서양화·사진 부문 1인당 3점까지 응모 가능

서울메트로(사장 이정원)는 오는 20일부터 '제8회 서울메트로 전국미술대전' 작품을 공모한다. 시민들과 함께 문화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개최하는 이번 공모전은 만 18세 이상이면 국적 관계없이 전문 예술가부터 일반 시민들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다.

공모분야는 한국화, 서양화, 사진 등 3개 부문. 공모주제는 자유이나 지하철을 주제로 한 작품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작품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지 않는 미공개 순수창작품이어야 하고, 1인당 3점까지 출품할 수 있다.

작품접수는 7월 8일부터 7월 15일까지다. 서울메트로 홈페이지(www.seoulmetro.co.kr)에 신청서와 작품 사진파일을 제출하면 된다. 1차 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한하여 2차 심사를 진행하며 1차 심사를 통과한 작품은 개별 통보한다.

총 상금은 1400만원 규모로, 상금을 수여하는 수상작은 서울메트로에 귀속된다. 시상내역은 △대상(1명, 상장 및 상금 500만원), △최우수상(3명, 상장 및 상금 각 200만원), △우수상(3명, 상장 및 상금 각 100만원), △특선(14명, 상장), △입선(40명, 상장) 등이다.

대상은 서울시장상, 최우수상부터는 서울메트로 사장상으로 수여된다. 입선을 포함한 수상작은 9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서울메트로 미술관(3호선 경복궁역 소재)에 전시되며, 전시 첫째날인 23일에는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전국미술대전은 서울메트로에서 주최하는 대표적인 문화행사로, 시민들과 교감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대표문화로 성장하고 있다"며 "올해는 대상의 훈격을 높여 서울시장상으로 시상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치선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광화문에 할리우드 최고 커플 떴다?

밀랍인형 제작 '마담투소' 서울 상륙 기념 전시회

마담투소가 서울 최초 오픈을 기념해 1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브란젤리나와 함께하는 레드카펫' 행사를 개최했다.

200년 전통의 기술과 노하우로 세계 유명인사 밀랍인형을 제작하는 마담투소는 이번 행사에서 할리우드 톱스타 커플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의 밀랍인형을 실제 영화 시상식과 같이 연출했다.

마담투소 서울 전시는 서울 롯데월드에서 10월 31일까지 열린다.

/복현명기자 hmbok@

KRT 추천 허니문 인기 여행지 '베스트 3'

푸켓·칸쿤 등 다양화 추세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5월은 신혼부부들이 가장 선호하는 결혼식 시기로 꼽힌다. 여행사 KRT(대표이사:장형조, www.krt.co.kr)에서 허니무너들을 위한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허니문 여행지 '베스트 3'를 선정했다.

구관이 명관 태국 푸켓태국 푸켓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휴양과 함께 관광까지 겸할 수 있어 허니무너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KRT의 태국 푸켓 허니문 상품인 래디슨 풀 빌라 4박 6일 상품은 해변 접근성이 좋을 뿐 아니라 모던함과 전통적인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이색 리조트를 즐길 수 있는 상품이다. 자유일정과 패키지 관광 일정으로 구성된 세미 패키지로 푸켓에서 빼놓을 수 없는 코끼리 트래킹, 시내 관광, 마사지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자유여행이 부담스러운 신혼부부에게 안성맞춤.

다낭남안풀빌라

카리브해의 지상낙원 멕시코 칸쿤멕시코 칸쿤은 톱스타인 연정훈, 한가인 부부의 허니문 여행지로 알려지면서 최근 몇 년 사이 이 곳을 찾는 한국인 신혼여행객이 부쩍 늘었다. 이에 KRT에서는 칸쿤을 선호하는 허니무너들을 위해 룸 온니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호텔 공항 왕복 픽업 서비스, 정글투어, 스냅 촬영이 모두 포함 되어 있다. 숙소는 하얏트 지라라 리조트와 로얄톤 리베라 리조트 중 선택 가능하다.

신흥 인기 허니문 여행지 베트남 다낭 최근 가장 핫한 신혼여행지라 하면 단연 베트남 다낭 이다. 동양의 하와이로 불리며, 허니문 여행지의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다낭은 비행시간이 비교적 짧은 동남아 지역에 있어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거나 비행기를 오래 못 타는 신혼부부들에게 알맞은 상품이다.

KRT에서 선보인 다낭 남안 풀빌라 상품은 여행 기간 마사지 최대 5회와 내가 만드는 자유로운 선택일정이라는 컨셉으로 6가지의 선택일정 중 1가지를 선택해 즐길 수 있다.

/최치선기자

韓 문화관광축제 알리미 '차줌마'

홍콩·타이베이 순회 25일까지 프로모션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김영호)가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해외순회 특별프로모션에 나선다. 공사는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를 해외에 알리고 글로벌화를 촉진하기 위해 홍콩과 대만에서 업계설명회, 트래블마트를 개최하고, 국제박람회에서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펼친다.

이번 행사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차줌마' 차승원(사진)씨가 출연하는 타이베이 국제관광박람회. 차승원씨는 23일 박람회장 중앙무대와 한국홍보관 홍보활동에 특별출연한다. 일본, 중국 등 주변국들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관광전쟁터로까지 표현되는 국제박람회장에서 한류스타의 출연은 엄청난 파괴력을 갖는다.

특히 100인분의 비빔밥을 비비는 세러모니는 현지 언론의 집중 조명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류스타로서는 처음 참가하는 박람회 행사이니 만큼 현지의 기대가 매우 크다. 박람회 메인 테마도 문화관광축제와 한식, 광주 유니버시아드로 구성하였다. 타이베이 국제박람회는 다른 나라의 박람회와는 달리 여행상품을 현장에서 판매한다.

한국은 이러한 종합적인 판촉활동을 통해 박람회기간 중 방한객 현장 모객인원을 5000명 이상으로 잡고 있다. 이런 활동을 통해 박람회가 열리는 나흘간 총 30여만 명이 참관할 것으로예상된다.

문화관광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에서 매년 개최되는 수백개에 이르는 지역축제 중 우수축제를 발굴, 육성·글로벌화하기 위하여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 지원하는 제도로 금년 20년째를 맞고 있다. 올해에는 CNN에서 동계 7대 불가사의로 선정한 바 있는 화천 산천어축제를 비롯, 총 47개가 지정됐다.

차승원씨는 수준높은 매너와 성실성을 바탕으로 예능프로 '삼시세끼'와 사극 '화정'이 대만에 소개되면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중이다. 타이베이 국제박람회 주최측에서는 "차승원씨의 출연으로 역대 최고의 박람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현명기자

강강술래 "지갑 가벼운 5월 푸짐한 선물 드려요"

가정의 달 경품 대축제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대표 최종만)는 각종 행사가 몰려 있어 지갑이 가벼워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푸짐한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sullai.com) 고객마당·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폴란드, 천년의 예술' 전시회 티켓(1인2매)과 '보리미 찰보리빵 선물세트(40입)', 길벗 추천도서를 선물한다.

아울러 내 집을 감각있게 꾸미고 나만의 공간을 갖고 싶어하는 이들을 위한 인테리어 정보를 총망라한 '싱글룸 인테리어의 모든 것'과 가장 살 빼기 어려운 허벅지 부위를 체력에 맞게 부위별로 나눠 총 42개 운동 동작, 7DAYS 프로그램 소개서 '하루에 한동작 허벅지' 등 길벗 도서도 증정한다.

/김보라기자 bora6693@

삼성전자, 유로화 영향에 유럽 매출 '반토막'

1분기 매출 3조8527억
2분기 전망도 흐려
美시장은 작년과 비슷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유로화 환율 영향으로 유럽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환율 문제가 해소됐지만 2분기 역시 유럽 지역 내 매출을 장담하지 못할 전망이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15년 1분기 삼성전자의 주요지역별 매출현황(별도기준)에서 유럽 지역은 3조8527억원(12.16%)을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에 유럽지역 매출이 8조920억원으로 글로벌시장에서 21.8%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매출액도 절반이상 줄었고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졌다.

2013년 유럽지역 매출은 33조5645억원으로 글로벌시장에서 21.19%를 차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매출은 20조8982억원(15.16%)으로 연간 매출도 줄었다.

유럽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 미국시장은 올 1분기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 1분기 미주 지역의 매출은 9조2745억원으로 글로벌시장에서 29.27%를 차지하며 지역별 매출 1위를 차지했다. 전년동기 매출 9조312억원(24.33%)과 비교하면 다소 늘어난 수준이다..

미주지역의 매출액은 2013년 44조2526억원(비중 27.94%), 지난해 43조3940억원(비중 31.48%)으로 글로벌시장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은 올해 1분기 매출액 8조1977억원(25.87%)으로 2위에 올랐다. 이어 중국 6조5290억원(20.60%), 유럽 3조8527억원(12.16%), 한국 3조8353억원(12.10%) 순으로 매출을 올렸다.

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가 유럽지역에서 TV 등 가전 부문에서 좋지 못했다"며 "유럽 환율이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제품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실제 구매력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유럽 경기가 좋지 않아 구매자들의 수요가 약해진 상황에서 제품 가격마저 상승한 것이 판매 하락으로 이어진 것이다.

최근 유로화 강세를 보이며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해소됐지만 삼성전자의 2분기 유럽 지역 내 매출은 밝지 않을 전망이다.

박 연구원은 "실제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가격이 상승한 제품은 소비자들의 실제적인 구매력이 좋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임은정기자 eunj71@metroseoul.co.kr.

LG전자 모델이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G4 스타일러스'와 'G4c'를 소개하고 있다. 브라운 가죽의 'G4'(가운데)를 기준으로 'G4 스타일러스' 2종(왼쪽)과 'G4c' 3종이다.

/LG전자 제공

LG전자 'G4' 패밀리 라인업 글로벌 출시

LG전자는 'G4' 패밀리 라인업 'G4 스타일러스(Stylus)', 'G4c'를 글로벌 시장에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G4 스타일러스는 이달 말부터 북미·유럽·중남미·독립국가연합 등을 공략하고 G4c는 다음 달부터 유럽·아시아·중동아프리카 등에 출시된다.

LG전자는 두 모델에 G4의 3D패턴 후면커버, 후면키 등을 반영했다. 또한 보급형 스마트폰이지만 프리미엄급 모델에 내장되는 500만 고화소 전면카메라와 3000mAh·2540mAh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했다.

G4 스타일러스는 고무 재질의 터치 펜촉이 달린 스타일러스 펜을 내장, 5.7인치 대화면과 1300만·800만 고화소 후면카메라를 탑재했다. 색상은 메탈릭실버, 플로럴화이트 2종으로 출시된다.

G4c는 G4를 콤팩트하게 줄인 5인치 화면에 3000R의 곡률을 적용해 최적의 그립감과 작지만 강한 성능을 제공한다. 색상은 메탈릭그레이, 세라믹화이트, 샤이니골드 3종으로 출시된다.

조준호 LG전자 MC사업본부장(사장)은 "'G4 스타일러스'와 'G4c'는 각각 '대화면', '작지만 알찬 기능'을 선호하는 실속파 소비자를 위한 맞춤형 제품"이라며 "'G4'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해, 프리미엄과 보급형 스마트폰 시장에서 모두 판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정기자

LGD "올레드로 세계 TV시장 제패하겠다"

사업 육성 청사진 제시
미래형 신제품 공개 등
OLED기술 자신감 내비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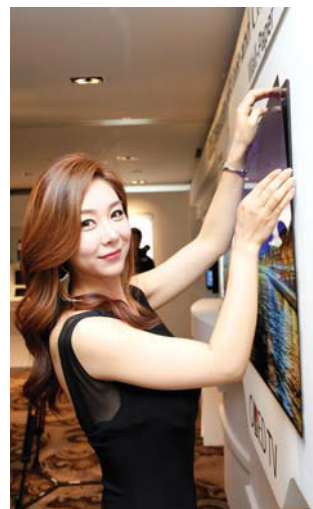
"OLED(이하 올레드)로 세계 TV 시장을 선도하겠다."

여상덕 LG디스플레이 사장이 벽에 붙이는 웰페이퍼 TV와 원형기둥에 설치되는 4000R 볼로 디스플레이 등 신제품을 공개하며 향후 TV 시장 제패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LG디스플레이는 19일 서울 종각 그랑서울에서 여 사장 주관으로 올레드의 우수성과 사업 전략을 소개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올레드 사업 육성에 대한 다양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여 사장은 "OLED 개발과 판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객사는 물론 장비·재료·부품 회사가 함께 성장하는 에코시스템을 구축해 올레드를 향후 국가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올레드는 전후방 산업군을 선도적으로 육성해 글로벌시장을 제패하는 디스플레이 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레드 TV는 광원부(백라이트 유닛)가 필요한 LCD(액정표시장치) TV와 달리 자체 발광 소자로 색상을 구현해 무한대의 명암비, 빠른 응답속도, 넓은 시야각 등의 장점을 지녔다. 특히 스스로 빛을 내는 디스플레이를 갖춘 덕분에 별도의 백라이트가 필요없어 초박형 구현이 가능하다. 액정표시장치(LCD)보다 응답속도가 빨라 잔상없이 자연색을 정확하게 표현하며 보는 각도에 따라 화면이 왜곡되지 않는다.

LG디스플레이는 이날 미래형 신제품도 공개했다. 벽지처럼 얇아 벽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월페이퍼 TV와 몰입감을 극대화해 시뮬레이션 디스플레이로 활용할 수 있는 500R 커브드 TV 등이다.

LG디스플레이 간담회장에 설치된 웰 페이퍼를 모델이 소개하고 있다.

여 사장은 "중국과 일본 등의 TV세트사로 고객군을 확대한 올레드 캠프조성에도 앞장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 공급 능력 확대와 비용 절감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구조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성운기자 ysw@

SKB, 軍장병 대상 '재능나눔 자원봉사' 진행

SK브로드밴드(대표이사 이인찬)는 국방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함께 군 장병 대상으로 취업·진로 컨설팅을 지원하는 '재능 나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이달부터 6개월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민간기업이 참여해 진행하는 첫 번째 국방부 시범사업으로 국방부는 올해 성과를 평가해 우수한 민간 전문가의 재능을 활용하는 국방재능기부은행을 설립, 향후 전군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SK브로드밴드는 전문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내 직원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군 장병의 경력개발과 진로탐색에 도움이 되는 성격유형검사(MBTI)와 직업흥미 검사를 실시하고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군 장병들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전략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실습을 하고 참여 군 장병 대상 일대일 코칭을 할 계획이다.

정태철 SK브로드밴드 경영지원부문장은 "기업의 신규 채용 시 적용하는 기준에서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군 장병들의 향후 진로 결정과 취업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며 "앞으로도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내 구성원들의 재능 나눔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활성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문경기자 hm0108@

KT-KB국민카드 금융ICT 신사업 MOU

대한민국 통신기업 KT(회장 황창규)와 금융기업 KB국민카드(사장 김덕수)가 만났다.

KT는 19일 서울시 광화문의 KT 사옥에서 신규식 KT 기업영업부문 부문장과 김덕수 KB국민카드 사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ICT 신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식에서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과 같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금융 플랫폼 구축, 금융 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로 협의했다.

/정문경기자

경쾌한 '하이브리드' 음악으로 승부

FNC 엔터테인먼트의 신예 밴드 엔플라잉(N.Flying)이 장르를 뛰어넘는 '하이브리드 음악'으로 가요계에 출사표를 던졌다. 메인보컬 겸 래퍼 이승협, 베이스 권광진, 기타 차훈, 드럼 김재현으로 구성된 엔플라잉은 국내 데뷔에 앞서 일본에서 2장의 앨범을 발표한 바 있다. 첫 인디즈 싱글 '바스켓(BASKET)'으로 오리콘 인디즈 주간차트 2위, 두 번째 인디즈 싱글 '원 앤 온리(One and Only)'로 일본 타워레코드 1위를 차지하며 스타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FNC엔터 세 번째 밴드
국내 데뷔 전 일본서 활동

멤버 최장 9년 연습생활 등
준비된 실력파 탄생 예고

록부터 힙합·펑크까지
다양한 장르 결합 '신선'

앨범 '기가 막혀'로 데뷔 엔플라잉

◆ 그토록 기다려온 순간

이들은 이미 리얼리티 프로그램 '청담동111'과 '원나잇 스터디'로 얼굴을 알렸다. 하지만 국내 데뷔 앨범 '기가막혀'를 발표하기까지는 무척 긴 기다림이 있었다.

이승협과 차훈은 5년, 김재현과 권광진은 무려 8년과 9년의 연습생 시절을 거쳤다. 그 사이 FT아일랜드, 씨엔블루, AOA는 회사의 기둥이 됐다. 그토록 바라던 가수의 꿈을 이뤘지만 선배의 뒤를 이어야 한다는 사실이 부담으로 작용하진 않느냐는 질문에 이들은 손을 가로저었다.

"준비기간이 길었던 만큼 많이 갈고 닦았어요. 신인이라 카메라 앞에서 어설퍼 보일 순 있지만 실력에선 두려울 게 없어요. 불안하지도 않고요." (권광진)

"떨리기 보단 설레요. 일본에서 공연하고 한국에 돌아와선 다시 연습생으로 지냈기 때문에 공연에 대한 갈망이 더 커졌거든요. 데뷔하면 공연 기회가 더 많아질 테니 설레죠." (차훈)

"저희 4명이 모여서 데뷔를 준비한 지 벌써 5년이 됐어요. 가족 같아요. 아니 가족이죠. 이젠 눈빛만 봐도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 지 알 수 있어요." (이승협)

이들이 돈독해진 계기는 일본에서의 생활 덕분이었다. 국내 데뷔에 앞서 일본에서 매니저나 회사의 도움 없이 살았다. 문자 그대로 '생고생'을 했지만 더 없이 좋은 공부였다고 한다.

"일본에서 매니저 없이 6개월 정도를 저희끼리 살았어요. 처음엔 일본어를 잘 못해서 10분이면 갈 거리를 한참 돌아가기도 했죠. 근데 그렇게 직접 부딪히며 산 덕분인지 일본어는 급속도로 늘었어요. 재현이는 일본어 공책 위에 '생존노트'라고 적어두기 까지 했어요(웃음)." (차훈)

"아무래도 일본 밴드 시장이 넓으니까 많은 걸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갔죠. 이틀에 한 번씩은 거리 공연을 다녔어요. 악기 무게를 다 합치면 거의 200kg 가까이 되는 데 그걸 저희끼리 나눠서 들고 다녔죠. 또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배고프기도 했고요(웃음). 근데 힘들기보단 재미있었어요." (김재현)

◆ 익숙하지만 새로운 음악

엔플라잉은 FT아일랜드와 씨엔블루의 계보를 잇는 FNC 엔터의 세 번째 보이 밴드다. 익숙한 구성이지만 이들의 음악은 선배들과 다르다. '뉴 플라잉(New Flying)'이라는 뜻의 팀명에서 알 수 있듯, 밴드 사운드를 기반으로 힙합·펑크·록 등 여러 장르를 결합한 신선한 음악을 첫 앨범에 담았다. 특히 이승협은 AOA 지민과 혼성 유닛 '지민 엔 제이던'을 통해 래퍼 제이던으로 활동한 독특한 이력이 있다.

"어릴 땐 힙합을 즐겨 들었어요. 오히려 록은 시끄럽다는 편견이 있어서 잘 안 들었는데 회사에 들어와서 친구들이랑 합주하면서 그 매력을 알게 됐죠. 후바스탱크, 오프스프링 노래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머리를 흔들고 있더라고요(웃음). 그 뒤로는 또 록에만 빠져 살았죠. 한 5년 간 록만 듣고 다른 장르는 배척했었는데, 이젠 모든 장르를 거의 다 들어요." (이승협)

"전 오히려 승협이 형이 힙합을 하고 록을 한다는 게 새로웠어요. 사실 밴드가 힙합을 하는 경우는 해외에서도 드물죠. 그게 아마 저희만의 매력이지 않을까요?" (차훈)

"엔플라잉이라는 이름처럼 언제든지 다른 장르를 시도할 생각이에요." (김재현)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star bag

네팔 이재민 위해 1억 기부

배우 **송중기**가 지난 18일 네팔지진 긴급구호를 위한 기금 1억원을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기부했다. 소속사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8일 "군복무 중인 송중기가 네팔 대지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어린이와 이재민을 돕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고 전했다.

데뷔 첫 단독 콘서트

가수 **에일리**가 오는 7월 4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데뷔 3년만의 첫 단독 콘서트 '페이틀 어트렉션(Fatal attraction)'을 연다. 에일리는 "단독 공연을 하게 돼 기쁘다"며 "설레지만 걱정도 된다. 멋진 무대, 알찬 공연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中 영화서 여명과 호흡

배우 **한채영**이 출연하는 중국영화 '불속지객(不速之客)'의 현장 스틸이 공개됐다. '스승의 은혜'를 연출하고 옴니버스 영화 '무서운 이야기'에 참여한 임대웅 감독의 작품이다. 한채영은 일과 사랑 모두를 놓치지 않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여자 림림 역을 맡았다. 홍콩배우 여명과 함께 호흡을 맞춰 화제를 모았다.

'밤선비' 심창민 절친

배우 **여의주**가 MBC 새 수목극 '밤을 걷는 선비'에서 노학영 역을 맡았다. 세손 이윤(심창민)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홍문관 교리다. 이윤의 버팀목으로서 그에게 날카로운 조언을 건네는 사려 깊은 캐릭터다. '밤을 걷는 선비'는 뱀파이어 선비 김성열(이준기)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판타지 멜로극이다.

오디션 스타들, 가요계 넘어 연예계 '접수'

연기부터 MC까지 다재다능
본업인 음악도 좋은 성적

엠넷 '슈퍼스타K'가 2009년 첫 방송을 시작한 이래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가수를 TV에서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 됐다. '슈퍼스타K'의 성공으로 각 방송사는 앞다퉈 유사 오디션 프로그램을 내놓았고, 각 프로그램에서 배출하는 가수의 숫자도 덩달아 늘어났다.

하지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식 데뷔 후에 인기가 식어 대중에게 잊혀진 사례도 많다.

그럼에도 오디션 스타의 활약이 기대되는 이유는 바로 이들이 지닌 재능 때문이다. 가수로서 연예계에 첫 발을 내디뎠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특히 '슈퍼스타K' 초대 우승자인 서인국은 '응답하라 1997'을 통해 배우로 거듭나 사극 '왕의 얼굴'에서 주인공 광해군 역을 맡아 쟁쟁한 배우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도 했다.

'슈퍼스타K' 박보람(왼쪽)과 '위대한 탄생 시즌2' 에릭남.

MBC '위대한 탄생 시즌2' 출신 에릭남은 MC와 리포터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할리우드 영화 오디션에 지원하는 등 연기에도 도전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팬의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본업인 음악 활동에서도 물론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예선부터 본선까지 치열한 경쟁과 심사위원의 날카로운 비판을 통과할 만큼 출중한 노래 실력을 지닌 이들은 새로운 음원 강자로 주목받고 있다.

'슈퍼스타K 6' 준우승 출신 김필은 최근 '메리 미(Marry Me)'를 발표, 유리상자의 '사랑해도 될까요'와 노을의 '청혼'을 잇는 결혼식 축하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박보람은 지난해 데뷔곡 '예뻐졌다'로 제4회 가온차트 K-팝 어워드 올해의 가수상 음원부문 8월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약 1년의 공백을 깨고 지난달 첫 미니앨범을 발표한데 이어 21일 가수 이현과 호흡을 맞춘 듀엣곡 '예쁜사람' 발매를 알리며 디스코그라피를 착실하게 쌓아가고 있다.

홍대광 역시 1년 만에 컴백했다. 지난해 발라드곡 '답이 없었어'로 데뷔한 그는 이번엔 경쾌한 미디엄 템포의 '잘됐으면 좋겠다'를 발표했다. 홍대광의 청량한 음색이 돋보이는 곡으로 현실에 지친 이들에게 위로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는 내용이다.

정준영은 록커다운 행보를 택했다. 솔로에서 4인조 밴드로 컴백을 예고한 것. 그는 27일 정준영밴드로서 첫 앨범을 발표한다. 밴드 결성은 그가 오래 전부터 준비해온 일로 조대민(기타), 정석원(베이스), 이현규(드럼) 등 실력파 멤버와 함께 거침없는 록 사운드를 들려줄 예정이다. 29일 제 4회 홍대 라이브 클럽데이 무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밴드 활동에 나선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전쟁터에서 부르는 아름다운 기적

임시완·고아성 주연 영화 '오빠생각' 크랭크인

배우 임시완, 이희준, 고아성이 만난 영화 '오빠생각'(감독 이한)이 18일 크랭크인했다.

'오빠생각'은 1950년대 초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그 아이들만은 지키고픈 한 군인이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부르는 아름다운 기적을 그린 영화다. 한국전쟁 당시 실존했던 어린이 합창단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영화 '변호인'과 드라마 '미생'으로 배우로 자리매김한 임시완은 합창단 아이들을 만나 서서히 변해가는 한상렬 소위 역을 맡았다.

첫 촬영을 마친 뒤 그는 "시나리오를 처음 접했을 때 아이들의 순수한 영혼을 지켜줘야 한다는 사명감을 던져주는 영화라서 하고 싶었다"며 "이한 감독님을 믿고 '오빠생각'이 전하는 순수한 영혼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역할에 최선을 다해 충실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최근 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로 주목 받고 있는 고아성은 합창단 아이들을 돌보는 박주미 역으로 함께 한다. 이희준은 전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 한상렬 소위와 아이들을 위협하는 갈고리 역으로 이전에 연기하지 않았던 인정사정없는 캐릭터를 선보인다. 연출은 '완득이' '우아한 거짓말'의 이한 감독이 맡았다.

/장병호기자

호러영화 '퇴마: 무녀굴' 촬영 종료

영화 '퇴마: 무녀굴'(감독 김휘, 제작 케이프로덕션, 플로우식스, PR ENT)이 지난 14일 크랭크업했다.

'퇴마: 무녀굴'은 정신과 의사이자 퇴마사인 진명과 그의 조수 지광이 기이한 현상을 겪는 금주를 치료하던 중 그녀 안에 있는 강력한 존재와 마주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공포영화다. 신진오 작가의 공포소설 '무녀굴'이 원작으로 '이웃사람'의 김휘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이웃사람'에서 김휘 감독과 함께 했던 김성균이 주인공인 진명 역을 맡았다. 유선은 금주 역으로 '돈 크라이 마미' 이후 3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한다. 천호진이 잘못된 믿음을 가진 강목사 역으로 함께 했으며 차예련은 방송국 PD 혜연으로 출연한다. 김혜성은 진명의 파트너이자 영매인 지광 역으로 군 전역 이후 첫 연기 활동에 나선다.

'퇴마: 무녀굴'은 후반 작업을 거쳐 올 여름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권력과 폭력, 끝없는 욕망의 지옥도

film review

/장병호기자 solanin@

■ 간신

후반부 느슨한 전개 아쉬워

'간신'(감독 민규동)의 오프닝은 강렬하다. 조선시대 연산군 때 일어난 갑자사화를 판소리 형식의 내레이션과 고속촬영으로 담아 보는 이의 시선을 단번에 붙든다. 잔혹하면서도 무자비한 폭력의 현장을 전시함으로써 영화는 앞으로 욕망의 지옥도가 펼쳐질 것을 예고한다.

그 중심에는 연산군(김강우)이 있다. 그는 권력에 취한 왕이자 광기에 사로잡힌 예술가다. 그가 그토록 거침없이 욕망과 쾌락을 좇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간신들' 때문이다. 연산군의 절친한 친구이기도 한 임숭재(주지훈)는 권세를 얻기 위해 왕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을 한다. 왕에게는 믿음직스러운 충신이지만 남들에게는 입에 발린 말만 하는 간신이다. 임숭재의 반대편에는 권력을 빼앗길까봐 노심초사하는 장녹수(차지연)와 유자광(송영길)이 있다. 이들은 각자의 권세를 지키기 위해 두 여인 단희(임지연)와 설중매(이유영)을 내세워 연산군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한다.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 때문에 민규동 감독의 전작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게 느껴진다. 하지만 영화를 잘 살펴보면 민규동 감독 특유의 색깔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가 난무하는 잔혹함과 살색 향연이 펼쳐지는 에로티시즘을 그저 자극적으로만 담아내지 않는다는 점이 그렇다. 화제를 모았던 단희와 설중매의 동성애 신은 야하기보다 폭력적이다. 여성 캐릭터를 관음적인 시선으로 욕망화해서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영화는 연산군에게도 인간적인 연민을 느낄 구석을 남겨 놓고 있다. 유려한 연출과 폭력적인 이야기가 빚어내는 묘한 조합이 인상적이다.

다른 사극과 마찬가지로 '간신'도 현대 사회에 대한 은유로 읽힌다. 광기에 사로잡힌 연산군은 욕망만을 좇는 권력이며 간신들은 그런 권력에게 아부를 떠는 정치인 혹은 재벌의 표상이다. 무엇보다 그 간신이 아버지와 아들 두 세대로 연결돼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아버지 세대에 이어 권세를 이어 받는 아들의 모습에서 세습 재벌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은 우연만은 아닐 것이다.

문제는 영화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특히 단희와 설중매의 동성애 신을 기점으로 영화의 긴장감은 다소 느슨해진다는 점은 '간신'의 치명적인 단점이다. 야심으로 가득했던 오프닝의 긴장감도 131분의 러닝타임을 팽팽하게 이어가기에는 역부족이다. 청소년 관람불가. 5월 21일 개봉.

수애 '가면'서 1인2역 연기

배우 수애가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SBS목동에서 열린 드라마 '가면'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SBS 새 수목극 인사 '야왕'과 캐릭터 달라

배우 수애가 1인 2역에 도전한다.

수애는 SBS 새 수목극 '가면'에서 변지숙·서은하 역을 맡았다. 두 사람은 도플갱어지만 전혀 다른 생활 수준에 처해 있다. 변지숙은 남들처럼만 행복해지고 싶은 백화점 판매원이다. 서은하는 최민우(주지훈)의 약혼녀이자 국회의원 아버지 덕분에 부유하게 자랐지만 애정 결핍인 인물이다. 변지숙·서은하는 서로 위험한 거래를 한다.

19일 양천구 목동SBS에서 열린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부성철 감독은 "수애와의 첫 촬영이 변지숙과 서은하를 동시에 찍어야 하는 날이었다"며 "1인2역을 잘 하는 배우는 있으나 캐릭터마다 고유의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 있는 배우는 흔치 않다. 매일 행복하게 수애가 주는 영감을 담으려고 노력 중"이라고 촬영 소감을 전했다.

이에 대해 수애는 "감독이 나를 잘 만들어 준다"며 "표면적으로는 가난과 부유한 두 인물이지만 가난하면서 내면이 풍부한, 부자지만 내면이 결핍된 아픔을 표현하고자 한다"고 역할을 소개했다.

전작 SBS '야왕' 속 야심 있는 여자 주다해와 비슷하다는 지적이다.

수애는 "비슷하지 않다. 극 설정 때문에 주다해와 겹쳐 보일 수는 있지만 '야왕'처럼 야심을 채우는 인물은 아니다. 비슷한 내면의 아픔을 지닌 사람을 사랑하는 인물일 뿐"이라며 "실제의 나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뿐 야망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가면'은 자신을 숨긴 채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으로 사는 여자와 그 여자를 지켜주는 남자를 통해 진정한 인생 가치를 깨닫는 이야기를 다룬다. 암투, 음모, 복수, 미스터리를 녹여낸 격정 멜로 드라마다. 오는 27일 오후 10시 첫 방송된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복면 검사'의 이중생활 최초 공개

◆ KBS2 새 수목극 '복면검사' 오후 10시

속물 검사지만 밤에는 복면을 쓰고 악을 처단하는 하대철(주상욱)과 정의롭고 열정 넘치는 감정 수사관 유민희(김선아)의 활약을 유쾌하게 그린 드라마다. 첫 회에는 가수 겸 배우 최시원이 유민희에게 취조 당하는 허당 절도범으로 등장해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서울 중앙지검 엘리트 검사 강현웅으로 분한 엄기준과 주상욱·김선아의 삼각 로맨스도 관전 포인트다. 하대철이 복면을 쓸 수밖에 없는 사연이 공개된다. /정리=전효진기자

◆ JTBC '크라임씬2' 오후 11시

'크루즈 살인 사건' 두 번째 이야기가 펼쳐진다. 센터 크루즈의 부선장을 살해한 진범이 밝혀지고 혐의를 벗은 용의자들이 하선하던 중 가방을 들고 나가던 홍 선장이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홍 선장을 죽인 범인은 누구일까?

◆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 오후 11시15분

여성 출연진과 함께 '상큼 새콤 시큼! 인간비타민' 특집으로 꾸며진다. SBS 예능 '불타는 청춘' 김국진의 파트너 가수 강수지, 드라마를 통해서 청순·섹시미를 보여준 배우 임수향, 모델 출신 방송인 김새롬, 그룹 AOA 초아가 출연해 MC들을 애교로 사로잡을 예정이다.

◆ KBS1 '윤건의 더 콘서트' 오후 11시40분

스무 번째 이야기 추억 편이 1차 마지막 전국 투어 장소인 춘천에서 열린다. 감성 클래식 무대의 주인공은 바리톤 고성현,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 바이올리니스트 김윤희이다. 특히 고성현은 가곡 '대지의 노래'에 이어 신작 한국 가곡 '묵향'을 공개한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일 (수)

지상파	KBS1	KBS2	MBC	SBS	EBS1	EBS2
18시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정보	10 생방송 오늘 저녁	00 생방송 투데이	00 톡! 톡! 보니 하니 1 (2843회) 05 코코몽 3 25 꼬마 철학자 휴고 45 동생이랑 나랑 (12회)	00 하늘 놀이터 (재) 25 Real Fun World (재) 30 출동! 슈퍼윙스(영어·한국어) (재) 50 Real Fun World2 (재) 55 시계마을 티키톡!(영어·한국어) (재)
19시	00 KBS 뉴스 7 30 엄마의 탄생	50 오늘부터 사랑해 (33회)	15 불굴의 차여사 (94회) 55 MBC 뉴스데스크	20 달려라 장미 (111회)	00 곤 30 EBS 뉴스 50 사선에서	25 내 친구 아서(영어) (재) 35 Real Fun World3 (재) 40 내 친구 아서(한국어) (재) 50 두키 탐험대(영어)
20시	25 가족을 지켜라 (8회)	30 반려 동물 극장 단짝 (13회) 55 비타민	55 딱 너 같은 딸 (3회)	00 SBS 8 뉴스 55 영재발굴단	40 다큐 오늘 50 세계 테마 기행	00 Real Fun World4 (재) 10 두키 탐험대(한국어) 20 스쿨랜드 (재) 30 공부의 왕도 (재)
21시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눈		30 한국기행 50 EBS 다큐 프라임	00 다큐 오늘 10 EBS 스타 강사 특강
22시	00 생로병사의 비밀 55 국민대합창 우리가	00 복면검사 (1회)	00 맨도롱 또똣 (3회)	00 냄새를 보는 소녀 (15회)	45 극한 직업	00 영화로 배우는 영어 <아폴로 13>
23시	00 KBS 뉴스라인 40 문화빅뱅 윤건의 더 콘서트	10 추적 60분	15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15 한밤의 TV연예	35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24시	50 역사저널 그날 (재)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뮤비뱅크 (11회)	35 MBC 뉴스 24 55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35 나이트라인	05 지식채널e (재) 10 한국영화특선 <시라노 연애조작단>	30 선생님 선생님 우리 선생님 (재)

케이블	JTBC	tvN	올리브TV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CGV	스포츠
18시	30 냉장고를 부탁해 (27회) (재)		30 2015 테이스티로드 (18회)			◆ 프로야구 18:30 한화 vs SK (KBS N SPORTS) KIA vs 롯데 (SKY SPORTS) kt vs NC (SPOTV+) LG vs 넥센 (SBS SPORTS) 삼성 vs 두산 (MBC SPORTS+) ◆ AFC 챔피언스 리그 19:30 FC서울 vs 감바 오사카 (SBS SPORTS)
19시	40 연금복권 520 (203회) 55 JTBC 뉴스룸	40 명단공개 (63회) (재)	30 식샤를 합시다 2 (9회)	00 <극한직업>영광 대하잡이	40 백 투 더 퓨쳐 2	
20시	50 JTBC 뉴스룸	40 강용석의 고소한 19 (133회)	45 식샤를 합시다 2 (10회)	00 쇼킹 70억 (4회)		
21시	40 유자식상팔자 (102회)	40 수요미식회 (17회)		00 <와일드 인도네시아>3부	50 숨바꼭질	
22시			00 올리브쇼 2015 (11회)	00 세계로 가는 아시아 헌터 (4회)		
23시	00 크라임씬 2 (7회)	00 고교10대천왕 (4회)	00 2015 테이스티로드 (18회)	00 <2차 세계대전 최고의 작전, 더 레이드>코만도 부대의 정면 돌파		
24시	40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스페셜 (15회)	20 강용석의 고소한 19 (133회) (재)	00 오늘 뭐 먹지? (25·17회)	00 서바이벌 알래스카3 (5회)	00 제로 다크 서티	

강정호 성적표 'A', 팀내 최고 평점

美언론 공격·직관력 극찬 경쟁자 머서는 'F' 받아

시즌 초반 피츠버그의 주전 유격수 조디 머서에 밀려 출전 기회가 적었던 강정호가 이젠 머서를 제치고 주전으로 도약하고 있다. 피츠버그 지역 언론은 주요 야수들의 성적표를 매기며 팀 내에서 유일하게 강정호에게만 'A'점을 부여했다. 경쟁자 머서는 'F'를 받았다.

피츠버그 유력 매체인 포스트-가제트는 18일(현지시간) 스포츠 컬럼니스트 밥 스미직의 기고를 실었다. 스미직은 피츠버그 야수들의 성적표를 제시하며 강정호를 극찬했다.

스미직은 "강정호는 시즌 초반을 13타수 1안타로 시작했지만, 이후 13경기에서 타율 0.421, 출루율 0.465, 장타율 0.684, OPS(출루율+장타율) 1.149를 기록했다. 엄청난 활약"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수비에서도 전혀 쩔쩔매지 않는다. 힘있는 공격력과 경기에 대한 직관력을 보여줬다"면서 A점을 줬다. 팀 내 최고 평점이다.

조디 머서

하지만 강정호의 경쟁자인 조디 머서에게는 공격력에 대한 혹평과 함께 낙제점인 F를 부여했다. 머서는 올 시즌 타율 0.176에 8타점에 그치는 등 극심한 타격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에는 강정호에 주전자리를 내주고 벤치에 앉아있는 일이 많아졌다.

다만 피츠버그의 클린트 허들 감독은 아직까지 이들 두 명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겠다는 입장이다. 허들 감독은 MLB닷컴과의 인터뷰에서 "너무 앞서서 누군가에게 혜택을 줄 생각은 없다"며 "우리는 계속 해서 최고의 라인업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MLB닷컴은 강정호가 한국에서 떠날 때 "기회만 주어진다면 조디 머서보다 잘할 자신이 있다"고 했던 말을 언급하며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현재까지는 강정호의 말대로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강정호

"박정진·권혁 선배님, 가끔 쉬세요"

좌완 김기현·잠수함 정대훈, 한화 불펜핵심 급부상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불펜의 핵인 박정진(39)과 권혁(32)의 뒤를 이을 기대주가 등장했다. 좌완 김기현(26)과 잠수함 정대훈(30)이다.

2군에서 활약하다 최근 1군에 합류한 이들은 이제 한화 불펜의 핵심 선수가 됐다.

김기현은 지난 14일 대구 삼성전에서 프로 입성 후 첫 승리를 챙겼다. 3-3으로 맞선 2회말 1사 1, 2루에 등판해 3이닝 동안 1안타만 내주며 1실점했다. 그동안 한화 타선은 5점을 뽑아내 김기현에게 첫 승을 안겼다.

이날 경기 후 김성근 감독은 "한화에 무척 중요한 경기였고, 김기현이 구세주로 등장했다"며 "오늘처럼 낮고 정확하게 제구한다면 한화 불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칭찬했다.

신일고와 원광대를 졸업한 김기현은 대학 졸업 당시 프로 구단의 외면을 받았다. 2012년 NC 다이노스에 육성선수로 입단해 시즌 종료 뒤 방출당했다. 2013년에는 사회인 야구단 코치로 생계를 이어가다 그해 가을 입단 테스트를 거쳐 한화에 신고선수로 입단했다.

오랜 무명 설움을 겪은 김기현은 "감독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며 지금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다.

정대훈은 12일 대구 삼성전에서 3-1로 앞선 4회말 1사 만루 위기 때 등판해 우동균을 삼진으로 처리하고, 후속타자 김재현마저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강인한 인상을 남겼다.

김 감독은 "정대훈은 위기 때 자주 등판한다"며 "최근 위기 상황을 잘 넘기면서 한화 불펜에 큰 힘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정대훈은 2008년 2차 5라운드에 지명됐다. 그러나 입단 첫해 1군 무대 2경기만 나서고 입대했다. 전역 후에도 2군을 전전하며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 평균자책점 2.51을 기록하며 한화 불펜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김민준기자

정대훈 김기현

최경주, 국내파들과 샷대결

SK텔레콤 오픈 내일 개막

최경주(사진) 등 해외파 골퍼들이 대거 입국해 국내파들과 샷대결을 펼친다.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SK텔레콤 오픈이 21일부터 나흘간 인천 스카이72 골프클럽 오션코스(파72·7241야드)에서 열린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최경주를 비롯해 김승혁, 김경태, 김형성 등 일본에서 뛰는 선수들이 출전한다. 올해 처음 국내대회에 출전하는 최경주는 SK텔레콤 오픈에서만 3승을 거둬 이 대회 최다 우승 기록을 갖고 있다. 디펜딩 챔피언 김승혁은 지난해 KPGA 투어에서 상금왕을 차지했다.

국내파로는 지난주 GS칼텍스 매경오픈에서 프로 데뷔 10년 만에 우승한 문경준, 시즌 개막전 동부화재 프로미 오픈 우승자 허인회 등이 나선다.

/김민준기자

이민지, 세계 랭킹 19위로 점프

LPGA 투어 데뷔 첫 승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킹스밀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호주 교포 이민지(19·사진)가 세계 랭킹 19위에 올랐다. 지난주보다 40계단 뛰어오른 순위다.

지난해 프로로 전향한 이후 이번 시즌 LPGA 투어 퀄리파잉스쿨을 1위로 통과한 이민지는 18일 끝난 킹스밀 챔피언십에서 15언더파 269타로 우승했다. LPGA 투어 데뷔 첫승이다.

리디아 고(뉴질랜드), 박인비, 스테이시 루이스(미국)가 1위부터 3위까지 변함이 없었고, 김효주가 펑산산(중국)을 5위로 밀어내고 4위로 한 계단 올랐다. 킹스밀 챔피언십에서 준우승한 유소연(25·하나금융그룹)도 지난주보다 한 계단 오른 6위가 됐다.

/김민준기자

UEFA 챔피언스리그 톱시드 8팀 확정

2015-2016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톱시드로 배정된 8개 팀이 확정됐다.

UEFA는 18일(현지시간) FC 바르셀로나(스페인)와 첼시(잉글랜드), 바이에른 뮌헨(독일), 유벤투스(이탈리아), 벤피카(포르투갈), 파리 생제르맹(프랑스), 제니트 상트 페테르부르크(러시아), PSV 에인트호번(네덜란드)을 다음시즌 챔피언스리그 톱시드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UEFA는 지금까지 각 팀의 과거 성적을 고려해 톱시드를 결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챔피언스리그 우승팀과 각국 리그의 1위팀 7개를 톱시드에 배정하는 것으로 규정을 바꿨다.

올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결승에 진출한 바르셀로나와 유벤투스가 모두 자국 리그에서 1위에 올라 톱시드를 받았기 때문에 PSV 에인트호번이 8번째 톱시드 배정의 행운을 얻었다.

/김민준기자

An innocent bystander gets hurt in a fight

<순박한 구경꾼이 싸움에 다친다 :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시사 English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방한하여 지난 18일 사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우리는 (북한이 야기할) 모든 결과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THAAD) 체계를 비롯, 다른 수단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사드 배치 논란이 불거진 뒤 미 국무장관이 공식성상에서 이를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미측 인사들은 그간 마치 '치고 빠지는'듯한 모양새로 사드를 언급하면서 한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해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케리 장관이 한국을 떠나기 직전에 사드문제를 거론한 것도 '한국이 고민해봐라'는 압박성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노골적으로 한반도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18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사이버안보'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도라 보는 시각도 상당합니다.

지난 3월에는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한국을 방문해 사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중시해달라"고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고위 당국자가 한국을 찾아 경쟁적으로 민감한 사드 문제를 언급한 셈입니다.

한국은 이른바 G2로 불리는 초강대국들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압박을 가해오자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옹색한 대책으로 '눈치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드 문제가 정치 쟁점이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중대한 사안에 여야가 실체적 논의 없이 탁상공론만 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답답할 노릇이지요. 국익을 최대한 고려하는 한국의 주체적인 태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Suffer a side blow in a fight, an innocent bystander gets hurt in a fight'라는 영어 속담이 있습니다. '순박한 구경꾼이 싸움에 다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한국이 사드의 정치쟁점화를 경계하고 보다 냉철한 자세로 자국의 득실을 따져야 거대 강국들 틈에서 애꿎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서이기자 redsun217@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5	1	2			8			
8			1	4			9	
		6		5				8
2	6							5
		8				1		
1							7	3
7				2		8		
	8			3	7			9
			8			4	6	7

			1	3			5	8
			9			2	6	
						4		
	2	3	6			9		
	4						7	
		6			8	1	2	
		8						
	6	2			5			
5	3			4	2			

스도쿠 정답

5	1	2	9	7	8	3	4	6
8	3	7	1	4	6	5	9	2
4	9	6	3	5	2	7	1	8
2	6	3	7	1	4	9	8	5
9	7	8	5	6	3	1	2	4
1	5	4	2	8	9	6	7	3
7	4	9	6	2	5	8	3	1
6	8	1	4	3	7	2	5	9
3	2	5	8	9	1	4	6	7

2	9	4	1	3	6	7	5	8
3	8	7	9	5	4	2	6	1
6	1	5	2	8	7	4	3	9
8	2	3	6	7	1	9	4	5
1	4	9	5	2	3	8	7	6
7	5	6	4	9	8	1	2	3
4	7	8	3	6	9	5	1	2
9	6	2	7	1	5	3	8	4
5	3	1	8	4	2	6	9	7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재취업 안되면 임대업 하려는데 잘 될까요
부부화합이 중요…한발 물러나 행동하시길

희망가득 남자 56년 10월 20일 음력 22시 20분

Q 직장생활을 하다 회사사정이 어려워서 그만두고, 다른 회사에서 1년 계약직으로 내년 3월까지 근무합니다. 1년 후에도 계속 직장을 다닐 수 있을까요. 나이가 많아 재취업하긴 어렵지만 성실하게 일을 하는 성격입니다. 재취업이 안 되면 모아둔 돈으로 임대업을 하려고 합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요즘 아내와의 사이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 말다툼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부부사이엔 문제가 없을까요.

A 귀하는 태극귀인(太極貴人)의 상으로 태극은 시종을 의미하여 작더라도 종래 성과를 거두는 기쁨을 암시합니다. 생일주(生日柱)가 사주 전체를 움직이는 것으로 '밤하늘에 별과 같은 형상'이니 고치고 연구하는 아름다운 성정입니다. 밤이 낮을 만나듯 귀인의 도움을 잘 받는 명이며 처궁에 천을귀인(天乙貴人)을 두어 덕이 있는 규수와 연분을 맺는 길명이므로 부인의 내조가 생각보다 큰 사주입니다. 일지(日支)에 분주한 일상 속에서 보수적인 경향이 강한 동시에 한편으로는 조급하고 인색하며 변덕이 심한 변화무쌍한 기질이 있기에 부인과 다툰다고 봅니다. 얘기가 길어지는 듯 하는데 좀 더 언급을 해본다면 재성(財星)이 길명으로 평생 돈의 궁핍을 받지 않으며 부인의도움이 상존합니다. 다투고 문제를 만든다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사업 운이 있으나 자신의 관리능력이 예상외 일 수 있기에 부동산의 학문적 도움과 임대업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연구하십시오. 길운에 있으니 임대업을 해도 잘 될 수 있으나 서두르다가 물건을 잘 못 살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권위와 명예에 편중된 성격으로 자존심이 매우 강한데 그것이 사업이나 부부관계에서 엄청난 장애를 초래합니다. 일의 과정을 보면 '스스로 불행을 만들어 놓고 불행 하다'고 푸념하는 셈이니 재취업도 마찬가지고 임대물건을 산다고 할 때도 연관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음양차착살(陰陽差錯殺)로 부인과 불화하고 상부극처(傷夫剋妻) 할 수 있으므로 귀하의 독단적인 힘으로 예전과 같은 위치를 확보하려고 발버둥 치겠지만 운에서 기운이 약해져 있으니 부부의 화합이 사업에도 큰 영향을 끼치므로 일보 물러나서 행동하면 좋을 것입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5월 20일 (음 4월 3일) 사주스타(www.sajustar.com) 060-300-8400

쥐 **48년생** 몸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세요. **60년생** 모든 사람이 나의 벗이 됩니다. **72년생** 모든일이 원만히 풀려 나갑니다. **84년생** 여행을 떠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소 **49년생**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61년생** 사랑은 기대도 하지 않던 생각도 못했던 곳에서 다가옵니다. **73년생** 꿈같은 시기를 만났습니다. **85년생** 삶에 의지가 솟구 칩니다.

호랑이 **50년생** 상하가 서로 화합하여 우의를 돈독히 합니다. **62년생** 유흥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될것입니다. **74년생** 건강에 주의하세요. **86년생** 애정운이 좋습니다.

토끼 **51년생** 좋지 않은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3년생** 때를 기다려야 하는 시기입니다. **75년생** 의욕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습니다. **87년생**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됩니다.

용 **52년생** 기로에 서서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64년생** 나쁜 것은 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76년생** 경제적 빈곤이 걱정됩니다. **88년생** 양심에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뱀 **53년생** 여행은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65년생** 일이 잘 풀려 나갑니다. **77년생** 자녀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것입니다. **89년생** 일에 있어서 너무 급하게 나아가지는 마세요.

말 **54년생** 지병이 있다면 꾸준한 치료를 요합니다. **66년생** 흉과 길이 서로 상반되어 있습니다. **78년생** 우연한 기회에 복운을 만나 평온해 지겠습니다. **90년생** 외출을 삼가하세요.

양 **55년생** 각별한 주위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67년생** 몸관리에 유념하세요. **79년생** 커다란 혜택을 보게 됩니다. **91년생** 허황되게 갖지 못할 물건에 마음을 두게 됩니다.

원숭이 **56년생** 생각도 못했던 좋은 선물을 받습니다. **68년생** 소박한 행복을 꿈꾼다면 매우 길하겠습니다. **80년생** 이직 생각은 하지 마세요. **92년생** 재물운이 매우 좋습니다.

닭 **57년생** 대처를 충분히 하세요. **69년생** 문제가 생기면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81년생** 구설수에 오르는 일을 조심하고 재물을 감시하세요. **93년생**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개 **58년생** 여행을 떠나는 것은 무언가 얻기 위함입니다. **70년생**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82년생** 큰 과업에 집중하세요. **94년생**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급급하지 마세요.

돼지 **59년생** 포부를 크게 가진다면 뜻대로 소원이 성취됩니다. **71년생** 손실이 따른다 해도 이것을 투자라 생각하세요. **83년생** 선물이나 용돈을 받게 됩니다. **95년생** 기분 좋은 날입니다.

2008년 부동산 광풍의 '학습효과'

윤경용의 So what

올 들어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신규아파트 청약경쟁률이 치솟고, 기존 주택매매 거래량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금융위기 이후 몇 년간 이어진 불황의 기억이 잊혀질 정도다.

이에 벌써부터 막판 열기를 내뿜던 2008년 부동산 시장과 비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때처럼 뿌리부터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하지만 2008년과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체질부터가 다르다.

잠시 얘기를 딴 곳으로 돌려보자.

2003년 카드대란 이전과 이후의 카드시장은 완전히 달라졌다. 공급자인 카드사와 수요자인 카드소비자의 인식이 그렇다.

카드대란으로 홍역을 치른 카드사들은 수요관리를 강화했고, 소비자들 역시 무분별한 사용을 자제하기 시작했다. 2003년 카드대란 효과로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건전한 카드소비 문화가 정착된 것이다.

다시 부동산 얘기로 돌아오자.

2008년 이후 극심한 침체에 빠졌던 부동산시장이 올 들어 회복세로 접어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카드대란 때 그랬던 것처럼 2008년의 학습효과가 2015년 부동산 시장에 투영되고 있다.

예컨대 2008년 이전 부동산시장은 용광로 속 쇳물과 같았다. 집값이 계속해서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팽배했다. 그래서 7~8%에 이르는 높은 금리에도 대출을 받아 너도나도 겁도 없이 집을 샀다.

문제는 달아 오른 속도만큼 시장이 식는 것도 빨랐다는 데 있다. 벌이의 절반 이상을 대출 이자로 내면서도 집값은 떨어지는 현상이 계속되면서 일반 서민들은 물론이고 중산층마저 하우스푸어로 내몰렸다.

이 같은 상황을 2015년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은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다. 최근 주택 수요자를 보면 치솟는 전셋값에 지친 무주택 실수요자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수도권 외곽의 서울 전셋값으로 옮겨갈 수 있는 아파트들이 완판 행진을 벌이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수요자들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무리한 대출이 하우스푸어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학습했다. 아무리 정부가 빚내서 집을 사라고 내몰아도 은행과 수요자가 스스로 재정건전성을 관리하는 것이다.

물론 지금도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는 사람이 전혀 없지는 않다.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 실물경기도 부동산 시장에는 악재다. 금리인상, 인구구조 변화 등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다.

그러나 카드대란을 거치면서 건전한 카드소비 문화가 정착됐던 것처럼 부동산 폭락을 거치면서 수요자들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인식도 달라졌다. 2015년의 부동산시장이 2008년처럼 폭락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을 떨쳐내는 게 중요하다.

/경제부장

신세계 면세점 입점이 몰고 올 살생부

기자 수첩
정 은 미
<생활유통부 기자>

신세계그룹이 시내면세점 후보지로 본점 명품관(본관)을 선정하면서 '살생부'가 벌써 나돌고 있다.

신세계 측은 지난 14일 "20년 숙원인 면세점 사업 유치를 위해 1930년대 건축 양식을 간직한 본점 명품관 전체를 면세점으로 꾸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본관은 1930년 국내 최초 백화점인 미쓰코시 경성점이 있던 곳이다. 1955년 동화백화점을 거쳐 1963년 11월 신세계백화점이 인수했다. 신세계는 2007년 본관을 리모델링 하고 재개장하면서 루이비통·샤넬·에르메스 등의 해외유명브랜드 다수를 입점 시키며 국내 대표적인 명품관으로 자리 잡았다.

본관은 지하 1층, 지상 6층 구조의 연면적 1만8180㎡ 규모다. 건물에는 해외명품브랜드 65개와 쥬얼리, 구두 등 잡화 브랜드 10여 개, 팝업스토어 3개가 입점해 있다.

그러나 신세계가 7월 면세사업권을 유치하면 이들 브랜드중 상당수는 당장 자리를 내줘야 한다. 신세계는 본관을 대신해 신관을 리모델링해 명품관을 다시 선보이겠다는 계획이지만 본관 내에 입점한 브랜드를 다 소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명품관에 입점해 있는 브랜드 중 상당수가 퇴점 될 것이라는 살생부설이 돌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 유커에 인기가 높은 루이비통·샤넬·에르메스 등의 명품 브랜드는 신세계의 면세점 사업권 유치 시에도 별 걱정이 없다지만 인지도가 약하고 매출이 적은 국내 브랜드와 주얼리, 잡화 브랜드는 벌써부터 방 뺄 걱정에 빠져있다.

더구나 신세계는 본관을 면세점 후보지로 선정하면서 본관 내 입점한 어떠한 브랜드와 상의한 적도 없다.

시내면세점 선정 시 관세청의 눈을 의식해 본점 인근 남대문시장과의 상생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본관에 입점해 있는 브랜드에 대해서는 내칠 생각부터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신세계가 앞으로 남대문시장과도 어떻게 상생 협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자정 능력의 배양

박상진의 트렌드읽기

레저 스포츠 활동 열풍이 잦아 들었다. 한 때 인기였으나 시들해졌던 당구, 볼링에서부터 운동으로 대접받지도 못했던 배드민턴, 사이클링까지 제품과 서비스 시장이 생기를 찾았었다. 말 그대로 문밖 활동(아웃도어)이라 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행위에 소비가치가 매겨졌다. 이 가치는 자본주의적 시각에서의 값이 아닌 인본주의적 관점으로의 값이다. 당연히 열풍이 수그러졌다는 것 역시 재화 측면에서 시장규모의 팽창속도가 늦어졌다는 것일 뿐 축소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소비자들은 꾸준하게 자신 만을 위한 레저 스포츠 활동을 찾고, 유지하고, 돈을 지출할 것이다.

외식시장에서 한식의 인기가 높아졌다. 외식산업의 싹이 튼 지 30년 만의 일이다. 미국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을 그 출발점으로 할 때 피자, 햄버거, 돈까스, 스시, 카레, 쌀국수 등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대표 음식이 외식산업의 정점에 한 번씩은 올랐었다. 물론 지금 한식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그 차례가 돼서는 아니다. 소비자가 새로운 음식에 대한 유혹과 매력보다 자신의 몸에 가장 잘 맞는 먹거리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다. 이것의 연장선에서 재료에 대한 판단과 확신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소비를 추구하는 탓이다.

문화산업에서 한류의 가치는 한국 국민이 갖게 된 문화자긍심에 비하면 미미하다. 신촌 여행지로 국내 관광지가 다시 주목 받고 있는 점, 헐리우드 영화에 당연히 주어졌던 관객 프리미엄이 한국 영화로 옮겨진 점, 불법 컨텐츠에 대한 강제적 규제가 줄어든 반면 해마다 커지는 자정능력 등이 그렇다. 속된 말로 '뼛속까지 박힌 사대주의'가 이젠 옛말이 됐다. 패션은 물론 디자인의 가치가 큰 제품이나 서비스에서도 자긍심은 상당하다. 교통질서에 관한 의식 역시 가속도가 붙은 듯 선진화되고 있다.

지난 주 예비군 훈련장에서 일어났던 총격 사건은 실로 무시무시하다. 언론은 그 사건을 둘러싼 환경과 제반 요소 중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에 집착했다. 책임추궁 등 전문가다운 지적뿐이었다. 충격적이라고 여겨지는 사회적 사건의 대부분은 사회 발전 과정의 부작용이다. 하지만 그에 대한 가장 좋은 처방은 자정능력의 배양이다. 그리고 이미 우리 소비자는 삶의 모든 면에서 급격한 자본주의 발전 상에 의한 부작용에 대응하고 있다. 사람이 가진 근원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지적과 질책, 추궁과 형벌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순 없고, 그것이 특효약도 아니다. 고래를 춤추게 하는 칭찬처럼 상대에 대한 신뢰를 더 높이고 잘 하는 것을 격려해서 그것이 일상화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Lone Star Lawsuit, Citizens… Hands off.

The legal battle over a multibillion-dollar investment compensation case between U.S. private equity firm Lone Star and the Korean government will start with its first hearing in Washington D.C. on Friday. The U.S. fund demands $4.68 billion in compensation from the Korean government.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which is in charge of the lawsuit, is not opening any of the related materials to public. There is a section in the ICSID homepage where people can view on individual lawsuit, but this case is being completely left out. The ones who claimed the lawsuit opposed to the observance of the third party. Citizens have no choice but to rely on the government for any truth to be told, but the ironic thing is that the authenticity itself may not be a fact. Therefore, people have doubt on the government's opinion on keeping everything a secret for national interests. So there is a controversy among people stating that there might be something behind all this.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론스타 소송, 국민은 관심 꺼?

론스타와 우리정부 간 투자자국가소송(ISD)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시작됐다. 론스타가 우리정부에 5조원가량의 천문학적인 돈을 물어내라고 제기한 소송이다. 국제투기자본의 유사한 줄소송이 이어질지 모를 중대한 소송이다. 막대한 국부유출의 가부가 달린 소송이다. 하지만 정작 우리 국민은 국외자로 소외되고 있다.

소송을 맡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소송에 대한 자료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ICSID 홈페이지에는 개별 소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페이지가 따로 있지만 론스타 소송만은 텅 빈 상태다. 소송당사자들이 모두 제3자의 심리 참관을 반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은 정부의 일방적인 전언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현재는 정부 전언의 진위 여부조차 가리기 힘든 상황이다. 국익을 위해서 정보 관리를 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이 먹히지 않는 이유다. 되레 '이번 소송에 무슨 흑막이 있지 않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

입사 3년 차,
발라드부터 댄스, 트로트까지
장르에 상관없이
분위기 띄우는 법을 배웠다. 그런데...

돈은 어디서 배우지?

아직은 돈에 서툰 당신, 신한금융투자와 함께
자산관리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세요

(2015.3.16 기준)
연 최고 수익률 **7.45%** 세전, 500만원 한도, 체크 + 신용카드 사용 시

상담전화 1588-0365

쓰면서 모으는 똑똑한
신한명품 CMA R+

CMA R+로 자산관리하고!
인테리어하고!

이벤트 기간 : 2015년 3월 23일~6월 30일

한샘 피노소파 3인용　한샘 피노소파 1인용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당해 수익률은 시장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벤트 경품은 상황에 따라 동급의 타 상품으로 교체될 수 있으며, 경품의 제세공과금은 당사가 부담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5-02367호 (2015.4.6~2016.4.5)